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라고 생각해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월 20일)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코로나 시대 기부 한파 후원 문화 다변화 필요

[기 획]
포스트코로나 '랜선 기부'

① 코로나로 반토막 불교기부
② 랜선기부 '플랫폼' 어디에?
③ 랜선 '디지털 에이징' 뜬다
④ 불교 랜선기부 롤모델은?
⑤ 포스트코로나 기부문화 미래는?

기부 최대 75% 감소까지
대면접촉 치중해 타격 커
'기부 감소 우려' 설문 1위
랜선기부 새 문화 조성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9년 12월 한국에 번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그리고 불교계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 1년여가 지난 2021년, 불교계 기부처의 기부후원액이 코로나로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포스트코로나와 위드코로나의 시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온라인 랜선기부를 중심으로 한 불교기부문화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본지가 2020년 불교계 기부단체와 NGO들의 기부 및 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단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기부 모연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의 경우 캠페인모금과 일반기부의 경우 2019년 각각 6191만원, 7억 7940만원에서 2020년 4543만원, 6억 2281만원으로 감소했다. 캠페인에서 26%, 일반분야서 20%가 감소한 수치다. 다만 아름다운동행은 조계종이 종단차원에서 진행한 백만원력불사기금과 수해피해복구기금 등이 대폭 증가하여 총액은 54억여원에서 125억여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이 진행하는 행복바라미 모연사업 또한 2020년 총액 4046만원으로 2019년 대비 25% 수준으로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날마다좋은날의 경우 4000여 포교사들이 직접 모금함을 들고 300여 사찰에서 모연을 하는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기부 한파가 몰아친 곳은 주요 기부처 뿐만이 아니었다. 산하 복지관 관리와 함께 사회공적 활동도 담당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도 신년 기자회견서 재단에 대한 일반후원이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불교계 대표 장기기증처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도 2020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2130명으로 2019년 등록수치를 기준으로 잡은 목표치 5000명에 비해 43% 밖에 되지 않았다.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또한 2020년 1478명으로 2437명 목표 대비 약 61% 수준이었다. 면허시험장과 대학가에서 장기기증을 받고 있지만 이런 사업 자체가 사실상 개점 휴업 지경에 이르렀다.

불교계 대표 장애아동 복지기관인 승가원 또한 코로나 여파가 밀어닥쳤다. 승가원은 2020년 74억 9000만원 후원으로 2019년 79억 9000여만원에 비해 5억여원이 감소했다. 승가원 측은 "2021년 1월 후원금을 보면 5억 4371만원으로 지난해 1월과 대비하여 13%가 줄어 기부후원 감소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코로나 기부한파는 비단 불교계 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른바 락다운에 의한 올스톱 상태와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난으로 기부모연이 크게 감소했다. '사랑의열매'를 운영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2020년 나눔목표액 3500억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염두해 목표액 자체를 2019년 4300억원에서 750억원을 사전에 줄였다. 최종 나눔목표액을 비교하면 18%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기부모연액 감소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중단과 나눔활동 전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름다운재단이 2020년 12월 '코로나19 시대의 민간모금과 비영리활동'을 주제로 발표한 기부단체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부단체들은 '코로나 이후 가장 걱정되는 문제'로 '기부금 감소'를 1위로, '프로그램 축소로 인한 수입 감소'를 2위로 꼽았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기부가 중단되거나 줄었다는 단체들은 전체 78.2%에 달했으며 각 단체들은 기부금 감소에 의한 활동 축소 우려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람들간의 접촉이 차단되고, 각종 업장이 멈추고, 폐업하는 상황에서 기부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젠 코로나 양극화로 인한 소외계층 증가에 대한 자비나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기반인 기부문화 확산은 불교를 떠나서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 기간 삶의 변화를 경험한 이들이 종식 후에도 예전 삶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온라인 기부 활성화와 같이 짧게는 정부서 밝힌 11월 집단면역, 길게는 기부문화의 다변화까지 고려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입학식도 이젠 온라인 시대 동국대는 2월 22일 줌 ·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입학식을 사상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사전 신청한 1000여 명의 학생 중 100명의 학생들이 줌을 통해 무대 위 대형스크린에서 화상으로 대면하고, 3000여 명의 학생들은 동국대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댓글로 참여했다. 또한 온라인 대화를 통해 신입생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기도 했다. 사진은 윤성이 총장이 환영사를 하는 모습.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불교무형유산 목록화' 추진

문화부 '불교무형유산 조사 · 연구사업' 진행

국고 1억원 지원… 동국대서 연구
범불교적 무형유산 파악 이뤄질 듯
학술적 기초자료 수집에도 의미 커

불교는 유 · 무형 문화재의 보고이다. 특히 무형유산의 경우 불교 전통 의례부터 풍습까지 다양하다. 어쩌면 일선 사찰에게는 너무 일상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작은 풍습도 보존해야 한다. 시대 변화로 인해 단절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이 보존 사각지대에 있는 불교무형유산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사업이 진행된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오심)는 최근 국고 1억 원을 지원받아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해당 사업의 조사 및 연구는 동국대에서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예비 조사 형태로 이뤄지며, 문헌을 중심으로 범불교적으로 어떤 무형유산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피게 된다. 문화부는 3월 중 자문위원 등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조계종은 불교무형유산 발굴에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08년 종단 내 무형유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종목 조사를 한 바 있다. 2013년 12월에는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을 제정해 사찰과 단체가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을 종단 차원서 지정해 보존에 나섰다.

지난 2017년에는 △불복장 작법 △다비 △통도사 단오용왕재 △해인사 단옷날 소금 묻기 △불교지화 △가사 등 6개 무형유산에 대해 종단 지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조계종이 올해부터 추친하는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사업'는 불교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형성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조계종 문화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전승 상황 등을 확인하고 문헌을 통해 실전된 무형유산들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올해 조사 사업은 무형유산의 종목을 파악해 목록화하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과 구한말 이후 실전된 무형유산들을 파악하는 것도 우선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차기년도에는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고 종목별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제 종정 예하 "부단한 정진 당부"

전국 선원 경자년 동안거 해제

경자년 동안거 기간 중 선방에서 용맹정진한 수좌들이 2월 25일 해제를 맞아 일제히 산문을 나섰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결제와 해제에 무관하게 전 생애를 걸어야 한다"며 대중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2월 25일 경자년 동안거(冬安居) 해제를 맞아 해제법어를 내렸다. 스님은 "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한 번의 발심(發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용기를 가지고 결제와 해제에 무관하게 전 생애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새벽이 오면 반드시 날이 밝듯이 화두일념이 현전(現前)하여 지속되기만 하면 깨달음은 저절로 오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경자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올해 동안거에는 전국 93개 선원(총림 7곳, 비구선원 56곳, 비구니선원 30곳)에서 총 1951명(총림 244명, 비구 1054명, 비구니 653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정 · 총림 방장 해제 법어 9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동국대 경주캠 학생들 97% "이전 찬성"

총학생회, 재학생 대상 설문 진행 결과

교통 · 인프라 미흡에 불만
주거 불안도 이전 요인로
학교 '先학사개편'에 방점
폐과 학과들 반발 확산 중
"소통 · 절차 무시 없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1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가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 을 주문한 데 따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동국대 경주캠퍼스 재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이전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는 이사회의 감사보고서 발표 직후인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를 SNS를 통해 2월 1일 공개했다.

5일간의 조사 기간동안 재학생 1046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1023명인 97.8%가 경주캠퍼스 이전에 찬성했다. 반대는 2.2%(23명)에 그쳤다.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교통과 주변 인프라 미흡, 주거 불안정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대학가라고 하기에는 교통과 인프라가 형성돼 있지 않고, 주변 석장동의 원룸 가격이 부산 · 울산 등과 비슷할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또한, 500만원 정도되는 원룸 1년 임대비용을 월세가 아닌 사글세 형태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경주 지역 사회에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주낙영 경주시장이 자신의 SNS계정에 "지방대학이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지 무슨 뜬금없는 캠퍼스 이전이냐"며 "경주시는 의과대학을 비롯한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이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는 지역구성원인 학생들을 배제한 입장에 대해 반발했고, 주 시장의 사과와 함께 △자취방 실태 조사 및 개선 △교통편 개선 △대학가 활성화 등을 경주시에 요구했다.

이후 경주시는 답변서를 통해 석장동 원룸 임대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노력을 비롯해 △노선 개편 시 학교 의견 반영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 △시장과의 좌담회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이전 요구가 높지만, 학교 측은 '학사 구조 개편' 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학과와 지역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학과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9일 법인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수요에 따른 학제 개편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지역과 상생하겠다"면서 "캠퍼스 이전은 장기적인 관점에 이뤄질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폐과 대상으로 포함된 과학기술대학 신소재화학과, 의생명공학과, 빅데이터 응용통계학과와 불교대학 한국음악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학과들은 2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절차 무시한 일방적인 폐과 통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과들은 "학교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4개의 학과를 폐과하고 뷰티메디컬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과, 스포츠의학과 등을 신설하려 한다"면서 "폐과 대상이 된 신소재화학과, 의생명공학과, 빅데이터 응용통계학과, 한국음악과의 학생회는 소통 없는 일방적인 통보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편은 어느 때보다 소통을 중시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왔고, 현재 총학생회 · 학과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다.

관계자는 또 "이번 학사구조 개편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2021학년도 신 · 편입생은 학습권을 보장하여 졸업 시까지 입학 당시 학과가 유지된다"면서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 희망자는 특별전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3월23일 개원

호계원장 · 포교원장 선출

조계종 제220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23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임 호계원장 · 포교원장 선출의 건이 예정돼 주목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2월 24일 '불기2565년도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 특별위원장 · 종책모임 회장단 제13차 연석회의' 를 열고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제220회 임시회 안건접수는 3월 16일까지, 종책질의 마감은 3월 18일까지다.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조계종 호계원장 및 포교원장 선출의 건이 있다. 호계원장 무상 스님의 임기가 3월 26일,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임기가 3월 14일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종헌 개정 및 종법 제 · 개정 특별위원회' '대한불교진흥원 관련 특별위원회' 등 종단 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논의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은 2월 25일 '2021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인증서 수여식' 을 봉행했다. 사진은 인증식 수여 후 신규단체 4곳과 모범단체 2곳이 단체촬영을 하는 모습.

"올해도 '승가결사체' 활동 기대합니다"

조계종 교육원 2월 25일 인증서 수여

대행보현회 등 신규 4곳
사회실천 등 27곳 활동

조계종 스님들의 전법교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승가결사체가 올해도 27곳이 인증받아 활동을 펼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21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인증서 수여식' 을 봉행했다.

올해 승가결사체 인증 단체는 총 27곳으로 신규 단체는 4곳이 새로 인증됐다. 신규단체로는 △대행보현회 자비애빵(대표자 묘담) △자비실천 병원포교단(대표자 지인) △희망드림(대표자 원명) △해운대구 천초 작은도서관(대표자 묘덕) 등이다.

대행보현회 자비애빵은 군법당과 교도소, 소외계층에 빵을 전달하는 포교를 하고 있으며, 자비실천 병원포교단은 교육을 통한 병원지도법사를 양성하는 등 병원 포교를 담당한다. 해운대구 천초 작은도서관은 청 · 장년세대를 대상으로 문화강좌를 진행하며, 희망드림은 김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행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재인증 받은 단체는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담마브릿지 △안양계 △언더스탠 △칠불회 △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 △EM지구사랑 작은실천 등이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부장 서봉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2018년 첫 시행 후 올해로 만 4년째를 맞았는데 승가교육과 불교중흥을 위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올해도 27곳을 인증단체로 선정했다"면서 "한국불교의 미래와 우리사회를 더욱 환하게 밝혀 나가는데 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6기 화쟁위원회 위촉…위원장 호성 스님

조계종, 2월 22일 위원 20명
동은 · 진경 스님 · 조형일 대표 등

조계종이 제6기 화쟁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촉하고 갈등 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6기 화쟁위원장은 호성 스님<사진>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제6기 화쟁위원장 호성 스님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6기 화쟁위원회는 각 분야의 중진 스님과 재가, 전문가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승가 위원은 위원장 호성 스님과 삼정사 주지 원소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 삼척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과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심적정사 주지 혜범 스님 등이다. 재가위원은 조형일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과 박사 북칼럼니스트, 허우성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장, 김선아 감독,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이다.

원행 스님은 "화쟁의 가르침이 더욱 간절하게 필요한 때"라며 "종단과 불교발전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쟁위원장 호성 스님은 "각종 사회갈등과 분쟁 속에서 화쟁의 이름으로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위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지희 기자

화엄사, 주지 후보선출 위한 산중총회

3월 19일 경내 화엄원서
3월7~9일 주지후보 등록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가 3월 19일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화엄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각일)는 최근 산중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3월 19일 오전 1시 화엄사 화엄원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 을 다룰 것을 공표했다.

화엄사 주지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7~9일이다.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했거나 말사 주지로 8년 이상,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해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주지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또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했거나 교육법상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도 인정된다.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은 법계 중덕 이상의 화엄사 재적승, 화엄사에서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 종무원으로, 화엄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스님, 화엄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스님 등이다. 또 화엄사에 4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가 돼 있고 산중총회 개회일 전 4년 이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했거나 결계 ·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경우 구성원 자격이 주어진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이며, 구성원 명부 열람기간은 3월 10일부터 12일까지다. 061)783-7600

송지희 기자

랜선기부가 대안, 기부플랫폼 지원을

[해설] 포스트코로나 '랜선기부' ①

NGO, CMS로 기부한파 적어
사랑의 열매 등 QR기부 도입
기부단체 양극화 극복이 과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부한파가 거세지만 조금은 상황이 나은 곳들이 있다. 바로 불교계 NGO 단체들이다. 지구촌공생회, 더프라미스, 로터스월드 등 국제개발협력NGO 단체들은 다른 기부후원 단체들에 비해 상황이 양호하다. 그 원동력은 CMS를 비롯한 랜선기부다.

지구촌공생회의 경우 2003년부터 CMS를 적극 도입했다. 1만원씩 후원하는 CMS로 인하여 월 1억원이 넘는 기부후원이 들어온다. 코로나 기부한파에도 기부후원 감소는 5% 수준에 불과하다,

사무처장 덕림 스님은 "회보 외에 인터넷 공지와 함께 문자 발송 등 운영이 중요하다. 마스크 후원 등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프라미스 또한 정부지원금과 기업후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부후원은 2019년 대비 8%감소했지만, CMS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후원금은 6%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더프라미스 측은 "충성도가 높은 고정후원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심리불안해소, 코로나 극복키트 지원 등을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통해 알리는 등의 활동을 2021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터스월드 또한 CMS에 기반해 2020년 상반기 3%가량 감소한 후원이 하반기 모두 회복됐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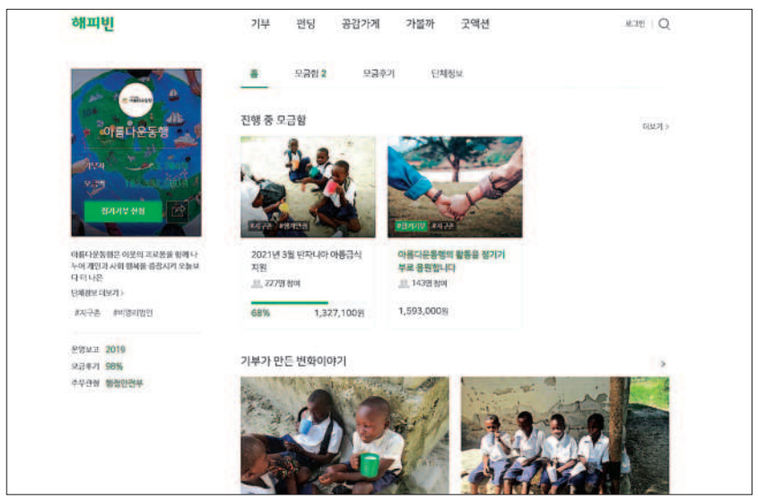
CMS와 함께 다양한 단체들은 SNS를 통한 홍보와 QR, 해피빈 기부 등 이른바 랜선기부를 모색하고 있다.

랜선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2월 초 유튜브 채널 '아름다운동행TV' 를 개설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꾸준히 모바일 기부를 받고 있으며, 생명나눔실천본부 또한 올해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장기기증 접수를 다양화 할 예정이다.

불교 밖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하철 QR기부 등 핀테크와 결합한 기부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문제는 이 같은 랜선기부에 동참하지 못하는 영세한 단체들이다. 영등포 쪽방촌에서 한끼나눔과 생필품 전달 등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쪽방촌도우미봉사회는 코로나 이후 후원액과 물품이 20% 수준으로 감소했다.

봉사회를 이끄는 김윤석 경감은 "쪽방촌 봉사의 경우 직접 봉사자들이 연탄나눔 등을 하며 기부도 함께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후원도 감소했다"며 "모바일 기부나 홈페이지에서 후원을 받는 등의 활동은 사실상 힘들다"고 전했다.



네이버 '해피빈' 을 통한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아름다운동행 해피빈 모금페이지.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부산 보현회(회장 안성이) 또한 코로나 기간 회원들과 만날 수가 없어 후원금이 50%가량 감소했다. 떡국떡 장사 등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교복지원을 하고, 결핵환자 돕기, 장애인 가정 지원 등을 진행하기에 1년에 4000만원 가량이 나눔활동을 위해 쓰이지만 모연처 전환은 답이 없는 상태다.

안성이 회장은 "일부 회원의 경우 자동이체를 하지만 작은 단체여서 보통 모임에서 만나 회비를 내고 동참을 한다. 큰 단체들이 모바일 기부, CMS 등을 하지만 사실 언감생심"이라고 전했다.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의 경우 회원들의 CMS정기후원을 조직하긴 했지만 회원 감소세로 회원 배가운동을 따로 전개 중에 있다.

한국모금가협회 이사 등을 맡고 있는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구글 비영리스터디 연구조사결과를 보면 기부자의 75%가 기부정보를 온라인에서 찾고, 기부자의 47%가 기부 전 복수의 기부사이트를 방문하며, 주로 유튜브인 온라인 영상을 본 잠재기부자의 30%가 기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현재 주요 정보전달인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한 기부가 앞으로 떠오를 것이다. '카카오같이가치' 등 소셜펀딩도 주목받고 있다. 주요기부처를 중심으로 작은 단체들까지 지원하는 불교 온라인 기부플랫폼 구성, 혹은 기존 플랫폼 활용지원 등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선암사 판결, 한국불교 역사·전통 왜곡"

조계종 중앙종회, 2월 24일
선암사 판결 규탄성명 발표

최근 대법원의 '선암사 차체험관 철거소송' 판결과 관련 조계종 중앙종회가 2월 25일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은 "대법원의 판결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외면함은 물론 국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유일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라며 "나아가 조계종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왜곡하고 해방 이후 왜색불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정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 이는 한국불교를 또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법부는 최소한 국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국가에서 정한 법률마저 부정한 채 통합종단에 반기를 들고 종단을 탈종한 이들이 불법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태고종 선암사를 합법화 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국가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한국불교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한국불교계의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부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불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역사상 최악의 판결로 규정한다"고 성토했다.

해당 판결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 국가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에 대한 실체 부정, 일본 잔재를 청산하고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독신 비구승들의 정화운동 정신마저 부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김상환 대법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현대불교문학상, '선문학' 부문 정휴 스님

조계종 · 문인協, 수상자 발표
이하석 · 성석제 문인도 선정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가 주관하는 제22회 현대불교문학상에 이하석 시인, 성석제 소설가, 정휴 스님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 중 정휴 스님〈사진〉은 '백담사 무문관 일기' 로, 올해 신설된 선문학 부문의 첫 수상자에 이름을 올려 주목된다. 조계종과 현대불교문인협회는 "선문학 부문은 불교문학 창달에 이바지 한 승려 문인을 선정하는 분야"라며 "그동안 불교문학을 견인해 온 정휴 스님을 첫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단(위원장 오세영)은 당선작 '백담사 무문관 일기' 에 대해 "백담사 무문관에서 수행한 체험이 녹아 있어 '꽃향기를 맡지 말고 들어보라. 번뇌가 삭아서 녹아내리고 군살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아픔이 일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기다림을 가져야 한다' 는 저자의 가르침이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휴 스님(운수시인, 고성 화암사 회주)은 "취하고 버림에서 자유롭고자 이 묵형(墨刑)을 받아들인다"는 말로 수상 소감을 전했다.

스님은 "육십이 넘어 사유가 깊어지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채우고 싶어 하는 곳을 비워야 소중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숭고한 정신은 고통 속에 다듬어지고 깨달음은 번뇌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정진이 길어지고 응시가 깊어지자 안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밝아져서 내 안에 닦아도 사라지지 않은 어둠이 있고 언젠가 밖으로 뛰쳐나올 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202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개최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대행스님 가르침, 인재 밑거름 되길"

한마음선원 2월 22일, 제 16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2월 22일 제16회 대행장학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대행장학회 장학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여식 없이 전달됐다.

대행장학회는 대행 스님이 남긴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라' 는 유지에 따라 운영되는 장학회로 각종 학업 우수 학생을 비롯해 신심이 돈독한 불자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다. 담당 스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며, 경인교육대학교의 불심이 돈독한 우수 학생에게도 수여된다. 이날 장학금은 대행장학생 16명, 한마음장학생 18명, 경인교육대생 10명 등 총 44명의 학생에게 전달됐다.

장학회 측은 "지급되기까지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준 후원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정성스런 마음 하나 하나가 모여 어려운 시기에도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더 많은 꿈나무들에게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은 "이 장학금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큰 힘을 주시는 큰스님의 뜻이 살아있는 선물이자 양식"이라고 장학 의미를 부여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성전 발간을 고합니다" 조계사 대웅전의 부처님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금색 보자기에 쌓인 성전이 봉정됐다. 조계종 최초의 〈불교성전〉이 드디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조계종 〈불교성전〉편찬추진위원회(위원장 원행)는 2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단본 〈불교성전〉 봉정식을 거행했다. 이날 봉정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월우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방창덕 포교사단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사, 성역화 사업 토대 구축한다

주지 지현 스님 2월 19일 신년기자회견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총본산 성역화 사업이 올해부터 서서히 본궤도에 오른다. 조계사는 지난해 성역화 주요부지에 위치한 건물을 잇따라 매입하고, 올해부터 이를 활용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2월 19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총본산 성역화 사업 현황 등 올해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사는 2016년부터 성역화를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해 왔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주요부지에 위치한 건물 2채를 잇따라 매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조계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부지 규모는 2000㎡ 가량, 2016년 처음 매입한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2019년 선재어린이집으로 재탄생했다.

조계사는 특히 지난해 매입한 건물들을 활용해 사찰 재정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임대 또는 직역매장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등 관계부서와 임대 사업을 위한 법적 · 행정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총본산 일대의 녹지화 및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종합타운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지 지현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조계사를 믿고 따라준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 1700년 한국불교 위상에 걸맞는 가람 건립을 위해 한국불교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범종루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의 낙후되고 가파른 계단을 철거하고 완만한 계단을 설치할 예정이며 종루의 낡은 북을 교체하는 등 범종루의 전반적인 환경 미화로 총본산 성역화를 향한 조계사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2월 19일 신년기자간담회서 올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총본산 성역화 사업 현황 공개
불교전통문화 보존·전승 추진
지역 사회의 나눔 확대 본격화
"비대면 신행 혁신 주도할 것"

불교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한 노력에도 본격 매진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목불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의 가치 재조명이다. 조계사 목불 좌상은 최근 도갑사 부처님과 유사한 상호와 삼각형으로 접힌 옷주름 표현 등이 조선전기 왕실 지원으로 제작된 도갑사 불상군 중 한 부처님일 것이란 학설이 제기되면서 그 조성시기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조계사는 지난 1월 목불좌상 X-ray 촬영 등 과학적 조사를 마치고 그간 연구 축적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올 3월 목불좌상의 국가문화재(보물) 승격신청을 추진 중이다.

불자 뿐 아니라 서울시민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더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나눔 · 자비실천도 대폭 확대된다.

조계사는 현재 서울노인복지센터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및 어린이집과 종로구마을자치센터 등 복지시설 수탁운영을 비롯,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등을 통해 연간 5억원 이상 규모로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부터는 '행복나눔 집수리 봉사-가가호호 포근한 우리집' 사업을 새롭게 진행해 이웃을 위한 세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조계사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경복궁 책방길 템플스테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는 어린이 · 청소년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조계사 역사탐방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맞는 비대면 신행프로그램 혁신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조계사는 SNS를 통한 유튜브 법회 생중계, 카카오 채널을 통한 조계사 소식 안내, 온라인 불교교육 등으로 변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교육과 법회 생중계, SNS 활용은 물론, '佛짬뽕' '총총 조계사' 등 참신한 컨텐츠에 주력해, 불자들의 혁신적인 온 · 오프라인 신행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현 스님은 "조계사는 불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 인구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나눔실천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동시에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하는 조계사로 거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에도 장애인 복지 확대를"

장애인복지관협회장에 조석영 관장 선출돼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생활과 연결된 필수유지 서비스가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과 이후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13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에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관장<사진>이 당선됐다. 지난 19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해 회장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조석영 관장은 총 232표 중 143표를 획득, 61.6% 지지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4년 2월까지다.

불자인 조 관장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근무를 시작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운영하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부장, 사무국장을 거쳐 관장으로 수십년간 재직 중에 있다.

불교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 장 관장은 협회 최초로 선거를 통해 이뤄진 이번 협회장 선출에서 △장애인복지관 기능 강화 △한국형 장애인복지관 실천모델 기반의 아시아 · 태평양 국제교류협력 추진 △장애인복지관 유형, 지역 특성 반영한 평가제도 개선 △장애인복지관 뉴노멀시대 대응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선도적 사업 전국 보급과 운영지원 등을 내세웠다.

장 관장은 "전국의 245개 장애인 복지관 관장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현재 위기에 처한 장애인복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휴관 상황에서도 장애인들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교육, 중등돌봄 등 방역 하에서의 서비스 제공이란 화두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관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실내에서 많은 서비스가 이뤄진다. 개념을 바꿔 자연 속에서 이들의 심신치료와 정서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사찰의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다양한 자연환경 활용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사노위, 미얀마군부 폭력 희생자 추모제

2월 25일 주한미얀마대사관서 "군부, 탄압 중단하라"촉구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며 민주화를 촉구하다 폭력적인 진압에 희생된 사망자들을 위한 추모 법석이 한국에서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2월 25일 재한미얀마청년연대와 함께 서을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사회노동위원회 이날 미얀마 민주화 시위 중 군인들의 발포와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5명에 대한 추모기도와 함께,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 행위 중단과 폭력적인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그간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쿠데타 중단과 반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조계종 종단기구가 이와 관련해 법석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사노위는 특히 군부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향한 추모와 함께 폭력적인 진압 중단을 요청해 주목된다.

기도회는 사노위 위원 고금 스님의 법고시연을 시작으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고통받는 미얀마인들의 평화를 발원하는 스님들의 염불로 진행됐으며, 박준 평화노동자 · 민중가수의 공연과 위원장 지몽 스님의 발언도 이어졌다.



사회노동위원회는 2월 25일 미얀마 폭력진압에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특히 사노위는 스님들의 염불이 진행되는 동안 장엄했던 괘불에 이어, 미얀마어와 한글로 제작된 추모현수막을 걸어 그 고통을 위로했다.

지몽 스님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세력에 의해 시민들은 잔인한 무력 탄압에 고통받고 있고 민주화시위를 하는 이들에게 무차별 발포와 조준 사격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미얀마 시민들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군부독재의 탄압을 먼저 겪고 민주화를 이뤄냈던 한국이 이같은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오늘 군부에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기도회는 종교를 넘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취지"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살상과 무력은 용납돼선 안 된다. 군부는 즉시 무력탄압을 중단하고 불법체포 및 구금된 시민을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광덕 스님 전법원력 잊지 않겠습니다"

불광사, 광덕 스님 22주기 추모법회 봉행

광덕 스님의 열반 22주기를 기리는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서울 불광사 · 불광법회는 2월 20일 불광사 보광당에서 '금하당 광덕 대종사 2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회주 지정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코로나19가 물러가지 않은 어려운 환경에도 큰스님 추모법회에 동참해주어 감사드린다"며 "보현보살 전법보살로서 무주상의 바라밀 수행과 문화를 향도하셨던 스님의 전법과 원력을 잊지 말고 보현행원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주지 진효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축년 한해를 준비하고 다짐하는 정초 7일기도 회향이 마침 광덕 스님 22주기 추모법회와 함께하는 날이라 큰스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증명해주실 것이라며 7일기도를 회향한 대중들을 격려했다.

법문에서는 광덕 스님 생전에 설한 마하반야바라밀 수행에 관한 가르침이 영상으로 전해졌다. 스님은 영상법문에서 "우리들이 반야바라밀 수행을 해서 우리들 자신 가운데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무한공덕장 세계, 이것을 믿고 부처님이 증명하신 것을 생각해자. 우리 진실수행을 더욱 게을리 하지 말자"는 당부를 전했다.

노덕현 기자



불광사는 2월 20일 광덕 스님 2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청정심 키우는 'CM명상상담센터' 문열어

〈Clear Mind〉

CM명상상담센터 2월 22일 개원식
전문성 강화해 일반인 접근성 높여
2011년 미타선원 지도사 과정 시작

"탈번뇌 돕는 핵심 방법은 관(觀)
서양 명상, 사성제 등에 기반해"

호흡 · 만다라 · 먹기 · 소리 명상 등
현대인 번뇌 해결 방법 구체적 제시

〈대념처경〉 〈반야심경〉의 이론적근거
명상체험, 상담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기초반부터 명상지도사 자격과정까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재)영도문화복지재단이 2월 22일 부산 남포동에 'CM명상상담센터'를 열었다. 사진은 개원식 후 참가 대중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부산지역의 불교문화와 청소년육성 및 사회복지사업을 이끌어온 (재)영도문화복지재단(이사장 하림)이 '명상'으로 또 한 번 외연을 넓힌다. (재)영도문화복지재단은 2월 22일 부산 남포동에 'CM명상상담센터(센터장 홍순하)'를 열었다.

부산 미타선원 인근에 자리한 'CM명상상담센터'는 부처님 말씀을 근본으로 하는 명상체험을 소개하고 전문 상담사 및 지도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하림 스님은 "현대 전문 상담기법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2500년 전 부처님이 이미 가르쳐주고 일러주신 것이다"며 "대념처경과 반야심경을 중심으로 연구해 확신을 더했다"고 말했다.

'CM명상상담센터'는 하림 스님과 홍순하 센터장, 정혜정 총괄팀장 등 명상 활동가들의 활동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10여 년 전부터 재단에서 준비해온 명상과 상담 활동을 잇는 새로운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개원사 및 축사,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된 개원식에는 이사장 하림 스님, 전법도량 의장 만초 스님, 유연선원 주지 희상 스님,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을 비롯해 홍순하 CM명상상담센터 센터장, 정혜정 총괄팀장, 온말연 미타선원 신도회 부회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이사장 하림 스님은 개원사를 통해 "그동안 사무실 없이 명상상담센터를 이끌어온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금 이 시대는 물질의 시대를 넘어 정신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중심 이슈가 된 사회이다. 새롭게 문을 연 CM명상상담센터는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한 명상과 상담을 통해 힘겨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대중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순하 센터장은 "CM명상상담센터는 전문성을 한 층 더 높였으며,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며 "요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CM명상상담센터에서 휴식과 평온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M명상상담센터 내부 사무실.



명상과 상담을 진행하는 체험 공간 모습.

전법도량 의장 만초 스님은 축사에서 "명상에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지만 불교와 명상 그리고 상담에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다"며 "하림 스님은 그 연결고리를 절묘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찾아 CM명상상담센터라는 소중한 불사를 해내셨다"고 축사에서 말했다.

CM명상상담센터는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명상과 상담을 체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체험 공간'이다. 미타선원 맞은편에 위치해 절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상담과 명상체험이 가능해 일반인과 타종교인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큰 장점이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유명관광지 남포동 용두산에 위치해 홍보효과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홍순하 센터장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와 같은 높은 관심은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CM명상상담센터 개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고 말했다.

CM명상상담센터는 우선 명상을 체험하고 안내하는 역할과 전문 명상상담, 명상지도사 자격과정 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체험 명상은 △일일 체험명상 △'마음길' 걷기 명상 △'원데이' 명상 △성격유형검사와 상담 △심리검사와 상담 등이다. 일일 체험명상은 3월 2일부터 시작되며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후 2시~3시까지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호흡명상, 만다라명상, 먹기명상, 소리명상 등이다. 체험명상은 1인에서 4인 이상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팀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체험비용은 각 과정에 따라 1~5만원이다. 전문명상상담은 정신과 의사가 직접 진행하며 예약 후 가능하다.

아울러 CM명상상담센터는 명상프로그램을 기초반, 심화반, 특별명상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명상지도사 자격과정(1급, 2급)도 운영한다. 명상지도자 자격과정은 말 그대로 지도자 양성과정이다. 지난 2월 6일 1급 명상지도사 17명을 배출했으며, 2급은 1기와 2기 총 48명이 수료했다. 1급 명상지도사들은 CM명상상담센터에 참여할 예정이다.

CM명상상담센터 프로그램의 특징은 〈대념처경〉과 〈반야심경〉을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시하고 있다. 불교라는 종교적 형태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 습관, 스트레스, 고통 등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적용하는 그 순간 번뇌가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도록 한다.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방법의 핵심은 '관(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대상이 일어나면 사라지길 바라며 통제하고 집착한다. 이에 대해 하림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바라보라 하셨다"며 "우리가 언제나 외우고 읽는 〈반야심경〉의 '조견오온개공'에서 '조견'이 무엇인지, 상담과 명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수승한 방법인지, 함께 알아가자!"고 말했다.

CM명상상담센터의 규모는 20여 평으로 상담실과 체험 공간, 안내실 및 주방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CM명상상담센터는 (재)영도문화복지재단 부설 미타선원에서 출발됐다. 미타선원은 2011년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명상지도사 3급 과정을 시작했고, 이어 2012년 3월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부산지부로 출범했다. 이후 청소년 마음등불-마음 톡 명상, 동주여고 명상동아리 운영지원, 집중명상상담학회 집중명상프로그램, K-MBSR(명상치유)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울러 중구노인복지관, 중구청 어머니 명상프로그램 협약 및 진행 등 외부 기관에서 활동하며 영향력을 높여왔다. CM명상상담센터 전신이 된 행복선(禪)명상상담센터를 2015년에 개설했지만 사무실 및 상담 공간은 미타선원 내 종무실 혹은 선방, 설법전 등에서 운영되어 왔다. 전문성을 높이고 포럼, 세미나, 체험 등을 제공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을 새롭게 열게 됐다.

Interview



"부처님 일러주신 觀 명상 상담 핵심 있어"

하림 스님
(재)영도문화복지재단 이사장

"치우친 견해와 집착으로 물든 우리 마음이 먼저 청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과 다른 이들의 마음을 비추는 맑은 물이 될 수 있습니다. CM명상상담센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상담하고 명상을 기반으로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사장 하림 스님은 새롭게 개원한 CM명상상담센터를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비춰 거울이 되는 곳이라 설명했다. CM명상상담센터의 CM은 'Clear Mind'의 약자로 청정심을 의미한다.

하림 스님은 대학원에서 명상상담심리학을 연구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보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마음의 번뇌와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서구 심리 과학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는 상담기법 및 유명 명상법들이 불교 핵심 내용인 사성제, 수행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림 스님은 "서양의 명상과 심리치료가 불교 명상과 사성제에 기반을 두고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반야심경〉과 〈대념처경〉을 보면서 부처님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을 일러주셨다는 것도 알았으며 강의와 실습을 통해 재차 확인하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가 불교답기 위해서는 '명상과 상담'을 위한 공간이 사찰 내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명상과 상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처님이 일러주신 '관(觀)'에 명상과 상담의 핵심이 있다. 이제는 그 진리를 사용하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접근해야 할 때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음선행장학회, 33년 인재불사 눈길

2021년 장학생 38명에게 3800만원 전달

대표이사 지현 스님 강의료 희사
장학금 33년간 총 6억 2000만원
학생들과 법담 나누며 소통 이어
"좋은 인재로 성장해 달라" 당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재)관음선행장학회는 2월 21일 부산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가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불사에 나섰다. (재)관음선행장학회는 33년간 지속적인 장학지원으로 인재불사의 모범 재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장학금은 총 620명의 학생들이 받았고 총 6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재)관음선행장학회(대표이사 지현)는 2월 21일 부산 사하구 당리동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정초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하며 법문 후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장학금은 스님 16명, 고등학생 5명, 대학생 15명, 대학원생 2명 총 38명이 받았으며 장학금은 각 100만원 총 3800만원이 전달됐다.

장학생은 송광사 율원 및 강원, 자비선사 및 동국대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가운데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해동고등학교 및 불자 학생 가운데 성실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했다. 장학지원을 받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가운데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고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을 후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지현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의 얼굴을 못 보는가 했는데 이렇게 마주하고 격려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해 나라와 불교를 위한 좋은 인재들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현 스님은 학생들과의 장학금 전달 후에도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원 박사 학위 취득 후 논문을 가져와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취업 시에도 감사 인사를 올린다.

(재)관음선행장학회는 1991년 정금강 행 불자와 뜻을 모은 불자들이 창립한 장학재단으로 자산 1억 원을 모아 설립, 운영돼 왔다. 2003년 12월 관음사로 정식 이관되어 재단법인으로 등록 후 운영되고 있다.

2019년에는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이 2억 5000만원으로 자산을 증액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현 스님은 평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스피스교육, 교양강좌, 불교교리강좌 등을 개설해 강의료 전액을 장학회 후원금으로 기부 중이다.

(재)관음선행장학회는 "사실 재단에서 나오는 이자를 장학 후원금으로 활용하기엔 금액이 소소하다"며 "스님께서 받으셔야 할 강의료를 모두 희사하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학금 지급은 지난 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총 35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는 "33년 동안 장학사업을 잇고 있는 모범적인 장학재단이다"며 "인재는 곧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다. 함께 동참할 도반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051)203-9461

부산불교교육대학, 코로나에도 향학열 높아

엘리트반 1기 및 유튜브 강의 신설


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은 3월 8일 입학을 맞아 학과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코로나에도 꺾이지 않는 향학열로 뜨겁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개교 40주년을 맞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경전 강좌 '엘리트반 1기'를 새롭게 개설했다. 아울러 SNS 활용 및 유튜브 강좌를 열어 비대면 활동을 지원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3월 8일 입학을 맞아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신설학과는 '엘리트반1기'와 '유튜브와 SNS 활용(초급과정)'이다.

엘리트반1기는 '화엄경 강의'와 '금강경 강의'로 나눠 진행된다. 1학기는 〈화엄경〉 강의로 화엄학 연구소장이자 화엄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신규탁 교수가 맡는다.

신규탁 교수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제자로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현재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활동하는 불교계 대표 석학이다. 강의는 신규탁 교수가 집필한 〈화엄경 초역〉을 교재로 사용한다. 〈화엄경 초역〉은 월운 스님의 〈화엄경〉 번역서를 토대로 핵심을 간추려 정리한 책이다. 핵심을 요약 정리해 일반인들이 방대한 〈화엄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2학기에는 前 해인사 강주 보윤 스님이 '금강경 강의'를 담당할 예정이다.

'엘리트반 1기' 강의는 1년 과정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에 진행된다. 현재 수강 신청 열기도 뜨겁다. 기초교리학과와 불교학과 졸업예정자 및 기존 대학원생 등 등록자 수가 늘고 있다. 이번 강의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유튜브 강좌가 병행된다.

학장 범혜 스님은 "유튜브 강의는 거리가 멀어 참석할 수 없는 타 지역 수강 신청자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제공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발맞춘 '유튜브와 SNS 활용(초급과정)'도 개설했다. 스님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강의는 6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에 진행된다. 강사는 유지호 불교신문 부산지사장이다. 유지호 지사장은 유튜브 불교 방송 '절로 TV'를 개설해 포교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3만8천여 명의 구독자가 참여 중이다.

이외 정규과정 중 자격증 반인 불교문화학과와 승려연수과정도 진행되며 문화힐링과정인 합창반, 다도반, 수화반, 대금반, 사물놀이반도 진행된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은 불교수도라 불린다. 올해 개교 40년 주년을 맞은 본교는 불도 부산의 산실이자 산증인이다"며 "이번 강좌 개설은 불자다운 불자, 지도자 양성에 목적을 둔다. 부산 최초의 불교대학으로 앞으로도 교육과 포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3월 8일 오후 7시 '2020년 합동 졸업식 및 2021년 입학식'을 부산 가야대로에 위치한 신동아빌딩 5층에서 거행한다. 코로나19 예방 확산을 위해 합동으로 진행되며 참석인원과 의식 절차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축소될 예정이다. 이날 불교문화포교사 및 전문지도사 자격증 수여식도 진행된다.
(051)711-07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성철 스님 사상 교육 도량으로"

정인사 2월 23일 교육관 낙성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수행하고 교육할 공간이 새롭게 조성됐다. 마산 정인사는 교육관 완공을 알리는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마산 정인사(주지 원행)는 2월 23일 교육관 낙성식을 교육관 2층에서 개최했다.

정인사 교육관은 성철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정법 수행 도량으로 건립됐다. 34년 전 정인사 창립 후 108참회, 능엄주 기도 수행처로 확대 후 체계적인 교육 및 포교를 위한 공간으로 건립됐다.

2019년 8월 교육관 신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11월 설계도가 완성, 2020년 4월 28일 기공식이 진행됐다. 정인사 교육관은 대지150평에 연건평 330평인 4층 건물이다. 교육관은 종합불교대학 강의실, 기도공간 및 참선방, 요사채, 주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낙성식에는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정인사 주지 원행 스님, 청량사 주지 원타 스님,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 정법사 주지 도문 스님, 수선정사 성일 스님, 진불선원 무아 스님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보광화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안 돼!"

울산불교환경연대, 설치 반대 캠페인 개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캠페인이 개최됐다.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는 2월 20일 신불산 웰컴복지센터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했으며 행사에는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기양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대표, 서민태 울산저널 대표, 김혜진 천년숲지킴이 천화 대표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천도 스님은 "'신불산은 나의 산이다'란 주인 의식으로 모두가 다함께 지켜야 한다"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산과 생명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짓이 반복되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자연환경 보호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보호막이다"며 "오늘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를 위해 동참해준 울산불교환경연대와 울산기후비상행동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생명나눔부산, 공감기부 교류식

국제신문 ·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 등 협약 지속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국제신문 ·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과 협력해 난치병 환우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는 2월 19일 국제신문에서 '공감기부 프로젝트 사업실적 확인 및 교류식'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교류식을 통해 지난 난치병 환우 치료비 및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과 이영숙 이사, 신정훈 부산은행 팀장, 배재한 국제신문 이사, 오상준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봉선사, 포교거점 '전법회관' 건립 발원

2월 23일 원만회향 기원법회
문화교육센터 '금곡선원' 추진
연면적2597㎡…4월착공 예정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봉선사가 불교문화 교육센터로 건립 추진중인 전법회관 '금곡선원' 조감도. 사진제공=봉선사

경기북부 지역의 전법과 포교를 견인할 전법회관 건립이 추진된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는 2월 23일 봉선사 전법회관(문화교육센터) '금곡선원' 건립을 발원하고 '불사 원만회향 기원법회 및 탑돌이'를 거행했다.

새롭게 건립될 금곡선원은 남양주 진접읍 금곡리에 위치하며, 향후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포교구심점이자 불교종합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기원법회는 4월 예정된 전법회관 불사 착공식에 앞서 그동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전법회관이 경기북부지역 포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으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과 총무국장 보관, 재무국장 혜복, 교육국장 법등 스님 등 사중 소임스님들과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김가전 행정실장), 김남명 교구신도회장 인사말, 이도피안 봉선사 신도회장의 발원문, 주지스님 법문, 탑돌이 등으로 진행됐다.

초격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전법회관은 남양주시가 봉선사의 품으로 들어오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며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역사적인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며 "봉선사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는 도량이 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새로 건립할 전법회관은 봉선사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법향을 나누는 구심점이 될 것이며 불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과 도민들이 함께 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도피안 봉선사 신도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를 전하게 될 봉선사 전법회관 건립불사가 부처님의 크신 원력으로 사고 없이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도록 봉선사 신도들의 마음과 노력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기원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전법회관 건축부지에 임시로 봉안한 탑 주변과 건립부지를 돌며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이번 불사가 원만하게 건립돼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포교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발원했다.

봉선사 전법회관 '금곡선원'은 2019년 2월 교구종회에서 '종교부지 매입건'이 결의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같은 해 5월 월초문도운영위원회에서 전법회관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친 회의와 종단 승인, 작년 하반기 교구종회를 거쳐, 설계 공모를 통해 구체화됐다.

금곡선원은 대지면적 2,16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97㎡로 건립될 예정이며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관리실 등이, 지상 1층에는 어린이집과 홍보 및 식당, 카페 등이, 2층에는 교육센터 등 생활문화시설, 3층에는 법당과 수행처인 금곡선원이 조성된다.

송광사 보성 스님 추모다례재 봉행



조계총림 前방장 보성 스님(1928~2019)의 2주기 추모다례제가 봉행됐다.〈사진〉 순천 송광사(주지 자공)는 2월 25일 대웅전에서 방장 현봉 스님, 법흥 스님, 도성 스님(부산 태종사)과 영조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성 스님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서는 사시불공에 이어 삼귀의례, 반야심경, 대중삼배, 추모입정과 헌향, 헌공, 헌다, 방장 현봉스님의 인사말, 문도대표 인사, 주지스님 인사말, 공지사항 등이 이어졌다.

현봉 스님은 "보성 스님께서는 조계종 전계사가 되시어 계단을 안정시키고, 법계위원장이 되시어 조계종의 법계를 안착하시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 또 20년간 조계총림 방장으로써 도량을 안정되게 이끄셨다"고 보성 스님을 회고했다. 스님은 이어 "스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늘 정진하고 스님의 유훈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범일 보성 스님은 1928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해, 1945년 해인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세 차례의 송광사 주지와 중앙종회 의원, 조계총림 5대 방장,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 2월 18일 송광사 삼일암에서 세수 92세, 법랍 75년에 입적했다.

한편 송광사 승가대학(대학장 연각)은 2월 25일 제32회 승가대학 졸업식을 갖고 4년간의 수학한 8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같은 날 율학승가대학원도 제22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입춘기도, 자비 나눔으로 회향



입춘기도 회향을 맞아 광주사찰들의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사진〉 광주 지산동 연화사(주지 명신)는 2월 20일 입춘기도 회향을 맞아 신도들이 모은 쌀 24,000kg을 광주불교NGO단체들에게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자비신행회, 백양실버타운, 빛고을나눔나무,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맑고향기롭게 광주지역,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에 전달돼 각 단체 사업에 사용된다.

명신 스님은 "동참한 신도들의 정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달 소감을 밝혔다.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도 2월 25일 회주 지각 스님, 신도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비 나눔의 쌀' 1,000kg 전달식을 가졌다.

지장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큰 보시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나눔활동 자체에 감사할 뿐"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대학 제33회 불교학과 졸업식 봉행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제33회 불교학과 및 제28회 법사과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2월 21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 법당에서 열린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졸업생과 전북불교대학 관계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33명, 법사과 15명이 1년 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의 영광을 안았다. 1월 31일 시행된 전법사 고시를 통과한 김형중 학인 등 6명은 졸업장과 함께 전법사 자격증을 받았다.

이창구 학장은 "졸업 후에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인석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은 "부처님의 동체대비의 사상을 모교와 함께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불교대학은 입학식을 4월로 연기했다. 조동제 지사장



소원정사 도계 스님, 불교회관 1억 희사

2월 25일 광주불교연합회 측에



광주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소원정사 도계 스님이 1억 여원을 전달했다.〈사진〉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2월 25일 사무실에서 도계 스님, 도성 스님, 소운 스님(관음사 주지), 해청 스님(원효사 주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회관 건립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불교회관건립 추진위원장이기도 한 도계 스님은 이날 기금을 전달하면서 "회관건립은 광주불교의 숙원사업이자, 미래 광주불교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불사"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원정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전체 100구좌(1구좌 108만원) 1억 800만원으로 신도들이 기부한 50구좌, 도계 스님 30구좌와 기타 20구좌로 만들어졌다.

기금을 전달받은 도성 스님은 "큰 원력으로 큰 마음을 내어주신 스님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좋은 불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선암 '니까야독송 천일정진' 회향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4부 니까야 독송 천일정진 기도결사 회향식'을 봉행했다.〈사진〉 2월 21일 금선암 극락보전에서 봉행된 이날 회향법회는 용인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 주상봉 법륜사 신도회장, 안준아 금선암 신도회장, 오종근 전북불교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2018년 3월 입재한 '4부 니까야 독송 천일정진 기도결사'는 당초 12월 19일 회향이었으나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이날 회향식을 진행 했다.

안준아 금선암 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일정진 결사기도의 원력을 세우며 시작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회향법회를 봉행하게 되었다"며 "하루도 쉬지 않고 정진하신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천일결사 회향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천일정진 기도결사 기간 하루 세 번의 4부 니까야 독송과 오후 불식을 행하며 원력으로 정진해왔다"며 "천일결사를 회향하면서 '금선자비공덕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곳을 살피고 금선암이 전법과 나눔을 실천하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해 미륵암, 코로나 종식 용왕대재



코로나 종식을 위한 용왕대재가 봉행됐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미륵암(주지 청운)은 2월 21일 미륵암 앞에 소재한 남해 앞바다에서 '신축년 코로나 종식을 위한 용왕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용왕대재 및 방생법회에는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미륵암 주지 청운 스님 외 지역 주민 및 신도 30여명이 동참했다.

이번 용왕대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병마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완치를 발원하고 병원 관계자 및 공무원 등 종사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모든 국민들의 안위와 평안을 기원하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미륵암 주지 청운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국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살아가는 불자가 되고 신심으로 참다운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中 가짜 '린포체' 소동, 결국 체포

갈취금액만 300억원대
성폭행 피해자도 나와

10여년 전 교도관 해직 후
티베트사원서 불교 접하고
린포체 사칭, 재산 착복해

박영빈 객원기자



가짜 린포체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왕싱푸. 사진출처=환구시보

티베트 불교에서는 환생의 교리에 따라 고승들이 제자들을 이끌고 불사를 이어가기 위해 다시 환생하여 찾아온다고 믿는다. 이렇게 환생하여 태어난 고승들을 '린포체'라고 부르며 특별히 존경하고 있다. 한편 이 '린포체' 제도를 악용한 중국인이 등장, 여러 사기행각을 벌여오던 것이 결국 덜미가 잡혔다. 자칭 린포체였던 이 중국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기막힌 소식을 지난 17일, '야후재팬 뉴스', '뉴스 포스트 세븐' 등의 외신들이 특별보도했다.

문제를 일으킨 중국인 왕싱푸(王興夫)는 중국 산둥(山東)의 지난시(濟南市)에 소재한 교도소의 교도관 출신으로, 티베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한족이나 스스로를 '톱상땐진 린포체'라고 자칭하며 신도들을 모아왔다.

왕싱푸는 10여 년 전 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원래의 교도관에서 해고, 떠돌이 생활 중 인연이 된 티베트 불교사원에서 불교를 접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원의 대중 스님들과 생활하며 기초적인 불교철학과 수행을 배우며 출가한 것으로 전했다. 이때의 법명인 '톱상땐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 신분마저 한족에서 티베트족으로 바꾸고 스스로를 환생한 린포체라고 자칭했다.

특히 출가 이전 부터 수행해 왔던 기공을 이용, 자신이 고안했다고 하는 밀교기공이라는 사이비 수행법을 시연하는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신도들을 끌어모았다. 왕싱푸의 교도관 시절을 기억하는 한 지인은 "교도관 시절에도 자신을 기공의 달인이라고 말하며 사람들 앞에서 곧잘 시연을 보이는 등, 탤런트적인 재능이 풍부했다"고 전했다.

왕싱푸는 베이징, 선양, 청두, 지난 등 8개의 도시에 자신의 사원을 창건했으며 등록된 신도만 3천여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도들은 기공수강료라는 명목하에 매달 5천 위안(86만원)부터 7천 위안(120만원)가량 납부했으며, 예불에 사용된다며 저가의 꽃병 등을 수십만 원씩 받아 챙겼다. 또한 수행의 성취도를 4단계로 설정, 최고위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거액의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착복한 재산은 중국전역에 12채의 호화저택, 현금, 귀금속과 보석 등 2억 위안(한화 약 340억원)으로 확인됐다. 재산들은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숨겨둔 아내와 아들의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전했다.

왕싱푸가 불교계에서 점차 명성을 얻어가면서 의심의 시선도 늘어났다. 결국 그의 교도관 시절을 아는 한 제보자가 인터넷을 통해 정체를 폭로, 피해를 입은 신도들이 고소에 따라 결국 체포 됐다.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재산의 착복뿐만 아니라 최소 10인 이상의 여신도들이 성폭행 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법원은 가짜 린포체 왕싱푸에 대해 사기죄와 폭행죄로 징역 25 년의 판결을 받았다. 주국 네티즌들은 "교도관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수감자로 다시 교도소로 돌아 오게 됐다.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며 비판을 가했다.

이제 스님도 '인플루언서' 시대

SNS 팔로워 3만 명 치카이 스님 '화제'



모두를 위한 불교를 알리고 싶다는 치카이 스님. 사진출처=위드뉴스

전통적인 불교국가이지만 일반 대중들과 불교 간의 거리감이 강한 일본. 이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강향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스님이 대중을 위한 불교를 이야기해 화제다. 트위터와 유튜브 상에서 3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마츠자키 치카이 스님을 지난 2월 19일, 일본의 '리얼 사운드', '위드 뉴스' 등이 소개했다.

후쿠오카현에 소재한 정토진종 사찰인 에이메이지(永明寺)의 주지인 치카이 스님은 소위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스님이다.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님은 남녀노소 모든 계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불교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에는 코로나로 인해 봉축행사가 취소되자, 트위터가 공유되는 만큼 관욕식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해당 공약은 일본 인터넷 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받아 총 3만 5천회의 관욕식이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됐다.

한편 치카이 스님은 최근 그동안 SNS상에서 공개한 내용들과 새로운 원고들을 합쳐 새로운 불교서적도 출간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느긋한 불교입문〉이라는 책을 낸 스님은 "스님이란건 쉽게 말해 부처님이라는 스타가 너무 좋아서 투신한 팬 같은 존재"라며 스님이라는 이미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원래 불교는 불도(佛道), 부처님의 길이다. 길은 거기 있는 그곳을 걷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길의 방향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교의 가르침이란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불교와 타종교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불교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부처님을 마치 초인적이고 신비한 존재로 이해하지 말자. 지금의 내가 지금보다 더 큰 존재가 될 가능성을 말해준다는 것에 기쁘게 생각해야한다"고 해석했다. 스님은 이렇게 불교를 이해하는데 "즐겁고 편안한 것이 중요하다. 당장 스님인 나 사진도 '재미'라고 생각하며 불교를 공부하고 있다"며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캐나다 비구니 스님들, 학업 포기 속출

브루데넬 불교교육기관
지역 반대에 기숙사 확장 좌초

지역 의회서 확장 계획 부결
기관 내 수용시설 한계 봉착
나이어린 불교학도들도 귀국



GWBI(Great Wisdom Buddha Institute)의 학생들. 출처=Buddhistdoor Global

캐나다 남동부 프린스 에드워드섬의 브루데넬(Brudenell)에 위치한 한 불교교육기관의 학생들이 건축물확장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강제 출국했다. 기관 내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2월 19일 C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광활한 지혜 불교 교육기관' (Great Wisdom Buddha Institute, 이하 GWBI)은 건축물 확장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의회에서 7대3으로 부결돼 좌절됐다.

이에 머물 곳이 없어진 14~17세의 불교학도들은 대만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각지로 흩어졌다. 외신들은 "이 소식을 접한 어린 불교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거부당했다는 생각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GWBI에서 수행해 온 이본(Yvonne) 비구니 스님은 "처음에 아이들(불교학도)은 조금 걱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어야만 했다"며 "그들은 우리는 왜 여기서 받아들여질 수 없을까. 우리 때문일까라며 좌절했다"고 했다.

지난 9월 마을 투표까지 이어질 정도로 지역민들은 여러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집값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후문이다. 불교 신자들과 가족들의 유입으로, 지역의 거주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가기에 지역 물가와 집값이 너무 비싸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는 것이다.

불교학도들이 떠난 후 GWBI를 지키고 있는 사브리나(Sabrina) 비구니 스님은 "그들은 눈싸움을 너무 재밌어했고, 늘 활기찼다. 그들은 이곳을 매우 북적북적하게 만들어줘 좋았다"며 "그들이 떠난 후 수도원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워졌지만, 고요는 계속 그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아쉬워했다.

GWBI는 시의회 결정에 항소할 수 있었으며, 일부 지역민들은 그들의 항소를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항소를 포기했다. 대신 스님들은 지역민들과 우호관계 형성을 통해 신뢰를 얻기로 했다.

이본 스님은 "우리는 지역민들에게 무조건 우리를 받아들여달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며 "그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신뢰받을 만큼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했다.

GWBI는 지역민들과 우호관계를 구축할 때까지 기숙사 공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그들은 121헥타르(121만㎡) 부지에 최대 1400명 비구니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축할 계획이다.

이본 스님은 "우리가 대규모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비구니가 비구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회에서 불교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우리는 비구니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日서 만나는 한반도 불교 성보

교토 고려미술관 '조선의 부처님' 특별전

4월 1일~8월 17일 진행
소장 불교문화재 공개해



일본의 간송으로 평가받는 1세대 재일교포 정조문(1918~1989) 씨가 건립한 일본 교토 소재 고려미술관에서 한반도에서 건너온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연다.

고려미술관(관장 이노우에 미츠오)는 4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반도의 불교미술전- 조선의 부처님'을 주제로 봄·여름 전시회를 연다. 전시에는 정조문 씨가 수집했던 한반도 전래 불교미술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고려미술관은 "한반도의 부처님의 얼굴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 미소는 우리를 치유케 한다"면서 "전시회에서는 각 시대의 불상을 중심으로 불화와 불교 도구 등 한반도의 불교 미술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전시기관에는 큐레이터의 갤러리 토크도 진행된다. 전시 기간동안 매월 2회 진행하며, 정원은 10명으로 예약제로 운영된다.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며 휴관일은 매주 수요일이다. 입장료는 일반인은 500엔, 고등학생과 65세 이상은 400엔이며, 중학생 이하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결제·해제 무관하게 생애 걸어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太平治業無像(태평치업무상)이요
野老家風至淳(야노가풍지순)이라.
只管村歌社飮(지관촌가사음)하니
那知舜德堯仁(나지순덕요인)이리요.

태평세월에 업을 다스리는 데는 상이 없음이요, / 들 늙은이들의 가풍은 지극히 순함이라. / 다못 촌에서 노래하고 모여서 마시는지라, / 이에 순임금의 덕과 요임금의 어짊을 어찌 아리요.

금일(今日)은 경자년(庚子年) 동안거 해제일이라. / 결제대중이 삼동구순(三冬九旬) 동안 산문(山門)을 폐쇄(閉鎖)하고 세상과 단절(斷絶)하면서 밤낮없이 용맹정진한 것은 가상(嘉尙)한 일이나, / 대장부의 활개를 치고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 애석하기 짝이 없음이라.

어째서 그러한가?

중생(衆生)들은 억겁다생(億劫多生)에 지은 반연(攀緣)과 습기(習氣)의 업(業)으로 인해 혼침과 망상으로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이라.

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한 번의 발심(發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용기를 가지고 결제와 해제에 무관하게 전 생애를 걸어야 한다.

화두를 챙길 때는 살얼음 위를 걷듯이, 시퍼런 칼날 위를 걷듯이 온 정신을 화두에 모아야만 육근육식(六根六識)의 경계를 다 잊고 몰록 일념삼매에 들어 일기일경(一機一境)상에 홀연히 대오견성(大悟見性)하게 됨이라.

이는 새벽이 오면 반드시 날이 밝듯이 화두일념이 현전(現前)하여 지속되기만 하면 깨달음은 저절로 오게 됨이라.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밥을 지으나 청소를 하나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챙기고 의심해야 함이로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선지식(善知識) 가운데 으뜸가는 위대한 선지식이고, 종문(宗門)의 귀감(龜鑑)이신 덕산(德山) 선사께서 회상(會上)을 열어 대중을 지도하고 계셨다.

참으로 훌륭한 두 분의 눈 밝은 제자를 두었는데, 한 분은 암두(岩頭) 선사로 참선하여 깨달은 바도 없이 그대로 생이지지(生而知之)요, 또 한 분은 훗날 천오백 대중을 거느리신 설봉(雪峰) 선사였다. 이로 좇아 운문종(雲門宗)과 법안종(法眼宗)이 출현했다.

하루는 덕산 선사께서 공양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발우(鉢盂)를 들고 공양실로 걸어가셨다. 공양주인 설봉 스님이 이 모습을 보고 여쭙기를,

"조실스님,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발우를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덕산 선사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방장실로 돌아가 버리셨다.

그 광경을 설봉 스님이 사형(師兄)되는 암두 스님에게 말하니, 암두 스님이 듣고는 대뜸 말하기를,

"덕산 노인이 말후구(末後句)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였다.

자신의 스승이건만 단번에 이렇게 평가를 하니, 법을 논(論)함에 있어서는 스승과 제자를 따지지 않는 법이로다.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발우를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덕산 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간 뜻이 무엇이며, 암두 스님은 어째서 덕산 선사가 말후구 진리를 알지 못했다 했는지 알아야 함이로다.

암두 스님의 그 말이 총림에 분분하여 덕산 선사의 귀에 들어가니 암두 스님을 불러서 물으시기를,

"네가 왜 내가 말후구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고?"

하시니, 암두 스님이 덕산 선사의 귀에다 대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은밀히 속삭였다.

도는 모든 것으로 통한다

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



山色水流諸佛現(산색수류제불현)
門外倭是悟無生(문외수시오무생)

산빛에 물 흘러 모든 부처 나타나니
문밖에 그 누가 생명 없음을 아는가

오늘이 해제라 하니 어떤 해제인가.

한겨울 90일을 두고 빠르다 하면 사견망상(邪見妄想)과 수면마(睡眠魔)를 취모리(吹毛利) 한 칼에 쳐버리고 화두일념으로 백척간두에 우뚝 선 천하대장군 수행자요, 느리다 하면 천지가 개었다 흐렸다 하다가 미륵하생(彌勒下生)에도 조사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없는 생사고해를 마지못해 따라가는, 이름만 수행자라 할 것이다.

정점을 향해 활을 떠난 화살이 해제와 결제가 어디 따로 있으리오마는 그저 이름만이 분별할 뿐이다.

그렇기에 옛 인도의 싯달타 청년 왕자는 만고의 부유만덕 속에 생로병사의 현상을 한 번 보고 할애(割愛) 출가하니 6년 고행에서 유아독존의 부처를 이루었고 옛 중국의 남악회양(南岳懷讓, 677~744)은 육조(六祖)의 한마디 말에 8년을 추구하다 확연대오하여 육조의 법맥을 이었다. 이를 누가 모르며 삼세의 모든 부처와 역대 전등의 조사 가풍을 누가 모르겠는가.

대지에 뿌리를 뻗고 자라난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그 나무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무심히 지나는 바람결과 그 바람을 따라가는 흰 구름이 스치는 바위는 요지부동이거니 짚신 한 짝 지팡이에 메고 총령 고개를 넘는 달마 대사를 알아차린 늙은 바위가 대중을 향해 노래 한 곡 부르겠다 한다.

木鷄鳴子夜(목계명자야)
芻狗吠天明(추구폐천명)
陰陽不到處(음양부도처)
一片好風光(일편호풍광)

나무 닭 한밤중에 울고
짚으로 만든 개 하늘 밝다 짖으니
그늘도 볕도 이를 수 없는 곳
한 조각 경치 더없이 좋네
나무아미타불

일대사 마친 자, 걸림없는 자재인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세 번치고 이르시되
(上堂 하야 打拄杖三下 云 하되)

격에서 뛰어난 대장부는
뜻이 종횡하니
뜻대로 하는 쾌할 자재한 사람이로다.
황금과 백옥이 귀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본 것이 이것이 귀함이로다.

出格丈夫意縱橫 하니
任運自在快活人 이로다.
黃金白玉未爲貴 요
識心見成是爲貴 로다.

또(又)

한 주먹으로 수미산을 쳐서 거꾸러뜨리고
심왕의 법왕궁을 건립하도다.
육국을 평정한 안온한 세계에
널리 시방불보살 및 중생에게
공양하도다.

一拳打倒須彌山 하고
建立心王法王宮 이로다
平正六國安溫界 에
普供十方諸刹海 로다.

일대사를 마친 자는
걸림이 없는 자재인 이니라.

終一大事者 는
無碍自在人也 라.

삼동결재 원만히 성취해 청백안 얻다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



上無片瓦하고
下無卓錐로다
日往月來에
不知是誰오 噫라

위로는 기와 조각도 없고
아래로는 송곳 꽂을 데도 없도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라. 아! 슬프다

안거를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운수납자여!

어제는 송곳 꽂을 자리가 없더니 오늘은 송곳마저도 없게 되었습니다.

경계가 이러할진대 원수와 친한 이가 있고 근심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가난하기는 범단(范丹)과 같으나 그 기개는 마치 항우(項羽)와 같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부유하면 일천의 대중도 적다하고, 가난하면 한 몸도 많다고 할 것입니다.

납자들이 삼동결재를 원만히 성취해서 삶이 꿈과 같고 뜬구름 같음을 체득했으니, 이는 청백안(靑白眼)을 얻어서 오가는 모든 일들을 웃으며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적적하고 요요해서 한 물건도 장애될 것이 없음을 괴이하게 여기지 말 것이니, 우리 불가(佛家)의 살림살이가 본래 그러하여 어디를 가나 모자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납자여!

산문 밖을 나가서 혹 영산 소식을 묻거든 지난 추위에 영각 앞 자장매가 더욱 곱고 향긋하다 전해주시오.

코로나는 부처님 발심법문…이웃 돌아봐야

덕숭총림 방장 달하 스님



동안거 죽비를 놓고 문을 여니, 얼음 풀려가는 대지에 한웅큼 땅향기가 지나갑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울려옵니다. 산천이 너무도 반갑습니다.

명백하고 묘하도다.훤출해서 태허공을 덮었고, 섬세해서 일체만물로 함께 흐르네.보고 듣고 삼세를 넘어있고, 백천 인연에 섞이지 않네.낮은 구름 터진 하늘에 기러기 일자로 날아가고달 떨어지는 곳에 원숭이 울부짖네.

-만공스님-

일물장재천지간 一物長在天地間
무량불조차개출 無量佛祖此個出
동서남북무처소 東西南北無處所
홀연돌출주장자 忽然突出拄杖子

일물이 길이 천지를 덮었네.
무량불조가 이 낱으로부터
출현하시네.
동서남북 처소가 없어도
홀연히 주장자 머리에 돌출하시네.일체가 한 생각이다. 이 신비여! 이뭘까?
굴릴수록 새 천지, 만고에 새롭네.
종일 써도 더욱 새롭고, 더욱 싱싱해.
이놈이네, 이놈이네, 이~놈이네!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일 때가 생각이 일어났을 때고, 생각에 이뭘까가 너울너울 함께하니, 이 생각이 무진보장이로다. 오매일여 몽중일여 앞세우지 않아도 그때그때 생각이 구경원성 살반야로다.

혜월스님께 금봉스님이 물었습니다.
"견성한 사람도 생사가 있습니까?"
혜월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허공이 생멸이 있더냐?"
금봉스님이 대답을 못하고 돌아와 이 사실을 만공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만공스님이 "왜 대답을 않고 돌아왔느냐?"
금봉스님이"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대답하라는데 무슨 잔소리냐!"만공스님은 핀잔하셨습니다.
금봉스님이 멍멍하다가 문득 화색이 돌며 말씀드리기를 "스님! 참 그렇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공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선지식이 머리 깨지는 대목이니라!"
뒷사람이 평을 붙이기를,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거꾸러지네' 라고 했습니다.
귀한 딸을 백정집으로 격하시켰네.
생각하면 선지식 머리 깨지는 공덕이 하해와 같습니다.

신축년 소띠해를 맞이했습니다. 소띠해 1년 365일을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께 머슴같은 소가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코로나19 역병은 부처님의 발심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허스님의 용맹정진의 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발바닥으로 내리고 뚜벅뚜벅 코 꿰이지 않는 상머슴 같은 소가 되어 이웃에 도움이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 이놈이네, 이놈이네, 이놈이네, 이~뭘까?

일거양득 一擧兩得 / 대시무단 大是無端
흔번과구 掀翻窠臼 / 굴착일반 屈着一般

하나를 들어 둘을 얻었네. / 크다, 이놈이여! 통하지 않는 데 없네. / 내 고집 소굴을 엎어버리니 / 천하가 무릎을 꿇네.

본분사에 삶·죽음 구별 없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도오원지(道吾圓智)선사와 점원중흥(漸源仲興)선사가 인근 마을 상가집에서 함께 조문을 마친 뒤 중흥이 물었습니다.

"생야(生耶)오? 사야(死耶)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러자 도오가 말했습니다.

"생야부도(生耶不道)요 사야부도(死耶不道)로다. 살았다고도 말하지 않고 죽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다시 두세 번 물었으나 돌아온 답변은 여전히 "말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선지식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을 공부로 연결시켰고 또 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삶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인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상갓집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도오선사의 양변을 벗어난 한 마디에 바로 알아차렸다면 그 자리에서 생사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중흥은 여전히 생사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던진 말이 올가미가 되어 계속 그 말에 끄달림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흥은 도오 회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뒷날 도오가 열반한 뒤 중흥은 그 화두를 해결하지 못하고 석상경저(石霜慶諸)선사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중흥의 질문에 석상 역시 도오의 법을 이은 제자답게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살았다고도 말하지 않고 죽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중흥선사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사는 것도 온전함을 전부 드러낸 것이며 죽은 것도 온전함을 모두 드러낸 것입니다. 본분 사에는 삶과 죽음이라는 앞뒤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할 수 없다' 는 그 말에서 그 낙처(落處)를 꿰뚫을 수 있다면 바로 천하 사람들의 혀끝을 꼼짝 못하게 꽉 틀어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반드시 스스로 참구하여 스스로 깨달아야 함을 중흥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제일입니다.

대중 스님들께서 결제 때 여법하게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그러나 해제하면 자칫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비 대면을 해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 경계를 만났을 때 오히려 혼자서 마스크 쓰고 공부하면서 만행하던지, 선원에 남아서 정진하던지, 산중 토굴에서 정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고 정진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시절인연이 도래할 때 생야(生耶)와 사야(死耶)가 둘이 아닌 경지가 어느 날 한순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생사사생휴갱문
(生死死生休更問)하라
종래일오타삼경
(從來日午打三更)이로다

살았건 죽었건 죽었건 살았건 묻지를 말라.

원래부터 한낮에는 삼경(三更)종을 쳤노라.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찬불가수 이종만의 30년 전 포크송



찬불가를 만들고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온 이종만 대표는 불교음악활동가이기 이전에 1980년~1990년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했던 포크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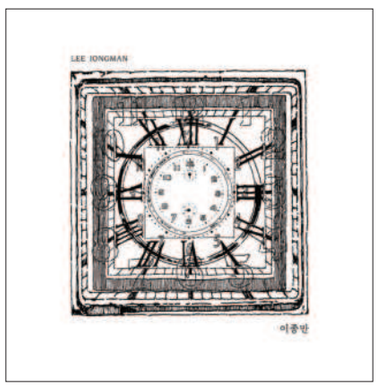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의 대표 이종만 씨가 30년 만에 LP음반(한정판) '이종만의 노래이야기' 를 발매했다.

이번 앨범은 이종만 대표가 그동안 발표했던 앨범 중 LP로만 발매한 1~3집, CD로 발매된 4집, 그리고 4.5집에서 발췌한 '베스트음반' 으로, '살아있는 기억',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장돌뱅이' 등 동시대에 대중과 소통했던 히트곡 10곡을 담았다.

정상유통을 하지 못했던 4집 앨범을 제외하고 1992년 3집 이후 30년 만의 앨범인 이번 앨범은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2장의 앨범을 올려놓은 인디밴드 허클베리핀의 전 앨범 LP제작발매로 관심을 모았던 '엘피플렉스' 에서 발매해 더욱 대중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96년 '좋은 벗 풍경소리' 를 만들어 찬불가를 만들고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온 이종만 대표는 불교음악활동가이기 이전에 1980년~1990년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했던 포크가수다.



이종만의 베스트앨범(LP한정판) '이종만의 노래이야기'.

좋은 벗 풍경소리 대표 이종만 씨
LP음반 '이종만 노래이야기' 발매
'음악이 생의전부는 아니겠지만' 등
1~4.5집 히트곡 모은 베스트앨범

1988년에 발매된 그의 데뷔앨범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은 발표되자마자 10만 장이 넘게 팔렸을 만큼 그의 노래는 한 시대의 대중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음악이며, 가수 이종만은 1980~90년대 한국대중음악이 재조명되면서 다시 조명되고 있다.

대중문화평론가 최규성은 이번 이종만의 베스트앨범에 대해 "싱어송라이터 이종만을 기억하는 대중이 몇이나 될까? 1980년대 후반에 진중하게 대중가요를 향유했다면 개성 넘치는 그의 노래 '장돌뱅이',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이다. 가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 곡들은 라디오와 음악다방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와 대중의 심장을 저격했던 노래들이다. 슬픔을 머금은 그의 회색빛 음색은 한 번 들으면 헤어나기 힘든 중독성을 발휘하는 마력이 담겨있었다"고 말한다.

1988년 1집 음반부터 주로 힘들고 외로운 삶에 대한 따뜻한 눈길을 주며 희망과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던 이종만의 노래는 결코 화려하거나 현란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개성 있는 목소리와 노랫말은 일상에 지친 대중에게 포근한 위안을 주는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오늘에서 그의 노래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앨범 발매에는 따뜻한 이종만의 노래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다. 손으로 그린 앨범 자켓의 그림은 이종만의 딸이 아빠 이종만을 위해 직접 그린 것이라고 한다.

이종만은 "음악은 가사에 맞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게을렀어요. 이번 앨범이 나오면 노래로 이야기하는 공연을 꿈꾸고 있어요. 제 노래로 활동을 너무 오랫동안 못했기에 큰 극장에서 공연하면 누가 올까 싶네요. 그저 10명이 오든 한 명이 오든 상관없이 여행 다니듯 전국을 도는 소극장 공연으로 제 음악으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만간 무대에서 이종만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 듯하다.



이종만 가수는…

1979년 포크 음악 모임 '참새를 태운 잠수함' 으로 활동을 시작해 1986년 그룹 '이종만과 자유인' 으로 1집 앨범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을 발표했다. 2집 '신사와 청바지', 3집 '나의 선택' 을 발표했고, 2002년 4집 '종로 아저씨' 를 발표했다. 1996년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 를 만들어 찬불가를 만들고 보급하는 일을 해 오고 있다. 1995년 첫 찬불동요집 발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0집을 발표했다. 국민 찬불가 '오늘은 좋은 날' 등 400여 곡의 찬불가를 발표했으며, 그 중 100여 곡이 자작곡이다.

2007년에는 두 차례의 개인 콘서트를 열었고, 행원문화상을 수상했다. 2010년부터는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와 음악감독을 맡고 있으며, 연등축제 회향한마당 기획과 각 사찰의 산사음악회 기획 등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연등축제의 노래 '오늘은 좋은 날', 찬불동요 창작곡집 '풍경소리' '장돌뱅이' 등이 있다.



박봉수 作, 탈춤, 47×71, 1959, 한지에 담채(반추상).

해외서 주목한 한국 수묵추상화

지홍 박봉수 화백의 초대기획전
무우수갤러리 3월 4~28일까지

30주기 맞아 유족 소장 작품 전시
독자적인 문자 추상회화 세계 구축
1956년 분황사의 원효 진영도 그려

무우수갤러리는 3월 4일부터 28일까지 한국 수묵추상회화로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던 지홍 박봉수 화백의 초대기획전을 연다.

박 화백은 국내보다 유럽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국내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그를 유럽이 먼저 알아보았고 그의 그림은 유럽 전역에서 공유됐다. 이번 전시는 그 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박 화백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로 박 화백의 30주기를 맞아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박봉수 화백의 작품세계는 박 화백만의 독자적인 문자 추상회화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분화 상태의 혼돈 속에서 추상적 묵혼을 조형하고 다시 의도적인 상형을 이루며, 디테일을 외면한 것 같은 무기교의 대담하고 투박한 선에서 강렬한 생명력이 보이는 그의 화풍은 고암 이응노, 남관 등의 추상화와 비견된다. 박 화백의 작품세계에 대해 원형갑 前 한성대 총장은 사물의 존재 표상을 찾아 유럽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오지까지 떠돌며 미의 극한점을 모색한 창조 정신을 고흐의 작품세계에 비교하기도 했다.

박 화백은 1930년대에 일본과 중국에서 미술을 수학하고 1939년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을 시작으로 수묵 추상회화의 세계를 개척했다. 1956년에는 경주 분황사의 원효대사 진영을 그렸고, 1988년 서울올림픽기념 한국현대미술전에 문자추상 '서경(書經)' 을 출품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프랑스 미술협회(A.D.A.G.P) 정회원으로도 활동했다.

일찍이 박 화백은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명성을 얻어 해외의 후원도 끊이지 않았다. 1950년대부터 미국, 일본,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초대전 및 개인전에 작품을 출품했으며 독일 베네딕트수도회 초청으로 수도원에 체류하며 유럽 스케치 여행을 통해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1963년의 작품 '명상 그리스도' 는 로마 갈멜수도원 본원에서 카톨릭 '상본(像本)' 으로 제작되어 유럽 전역에 보급되기도 했다.

박 화백과 교유했던 시인 구상은 "오늘의 예술가, 즉 한국 전체의 예술가 중에서 가장 화선불이(畵禪不二)의 삶을 살고 소위 화선일미(畵禪一味)의 경지를 이룬, 선과 예술, 도와 예술을 함께 이룬 그런 높은 경지를 보인 이가 바로 지홍 박봉수라고 말할 수 있다"고 평했다. 뿐만 아니라 박 화백을 평하는 동료 작가들은 동양의 노장 사상과 결부되었다고도 하고 도를 닦는 수사나 승려 같다고도 하고 철학자 같다고도 평가했다.

조수연 무우수갤러리 대표는 "신라의 풍토성과 실험정신으로 빚어진 작품이며, 불교와 기독교의 동일성적 원형을 동양적 소재와 서양적 기법으로 표현했다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02)732-3690 박재완 기자

전위음악 · 범패 등 박사논문 주제 '다채'

동국대 서울 · 경주캠, 불교박사 17명 배출

백남준 등 작품 禪적 분석
법화경 미학적 고찰 시도해
범패수행 · 차명상 · 설화 등
수행 · 교육 측면 연구 논문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는 각각 2월 16일, 17일 봄학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2021년 봄학기 17명의 불교 관련 박사(서울캠퍼스 12명, 경주캠퍼스 5명)가 배출됐다. 이번 박사 학위 논문들은 전위음악과 선에 관련한 연구부터 전통교학, 응용불교학 등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주제의 논문들이 눈길을 끌었다.

무념 스님(불교학과)은 **'반야의 전개와 수행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반야는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모두 반야가 해탈과 열반 등 깨달음의 본질이며 이는 대승에도 전승돼 〈대승반야경〉에서 제법실상인 공(空)을 토대로 반야(般若)의 완성인 반야바라밀 수행을 선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운 스님(불교학과)의 **'〈능엄경〉의 수행체계 연구'**는 〈능엄경〉에서 제시하는 체계를 식심견성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경에서는 먼저 교학적토대로 본성 자리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불지견(佛知見)을 세우고 사교입선으로 일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통수증하여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심 스님(선학과)의 **'일승의 무상의에 대한 연구'**는 일승이 불법의 무상의라고 일컬어지는 뜻을 십여시 · 일대사인연 · 대승보살도라는 세 가지 측면서 살폈다. 이에 따르면 〈법화경〉의 십여시에는 일승의 실상이, 일대사인연에는 일승의 지혜가, 대승보살도에는 일승의 행이 드러나 있다.

덕림 스님(선학과)은 **'범패의 수행원리와 활용방안 연구'**에서 범패수행의 원리가 실현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체험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수록했다. 이에 따라면 범패수행과정에서 범패의 발성과 선율을 기억하는 수련 등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작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범패 수행 참가자 전원이 수행에 대한 신념과 자존감이 향상됐다.

보원 스님(선학과)의 **'금강심론 수행론 연구'**는 구한말에서 해방을 살다간 선지식 벽산의 〈금강심론〉을 전반을 살폈다.

승범 스님(한국불교융합학과)은 **'조선후기 화엄십지 사기 연구–연담과 인악의 사기를 중심으로'**를 통해 편양파의 설파상언, 연담유일, 인악의첨 등 18세기 화엄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인물들이 저술한 '화엄십지사기'를 연구 · 역주한 결과를 수록했다. 이를 통해 당시의 교학승들이 〈화엄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이해하였는지, 그 사상적 경향이 상호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봤다.

연산 스님(인도철학과)은 **'한국불교 관욕의식 연구–경전적 근거와 설행'**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논문을 통해 "불교의 관욕의식이 인도 종교의 모습에서 비판과 변용과 수용의 변화 과정을 통해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불교의식의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는 바라문교나 인도의 정통종교와는 확연히 차별되는 것으로 불교 진리에서 구현됐다"고 밝혔다.

김나래(선학과)의 **'전위(Avant–garde) 음악과 선(禪)에 관한 연구'**는 백남준, 존 케이지 등의 전위음악가의 예술 활동을 선적으로 조명해 전위음악에 반영된 선사상을 고찰했다.

김수진(불교학과)은 **'여산 혜원의 법신관 연구'**에서 중국 동진의 고승 여산 혜원(334~416)의 법신관이 "현학의 사조와 반야학 및 아비담학의 사상들을 토대로 하였으며, 이후 구마라집의 대승 교의에 따른 법신관을 흡수 · 통합한 결과물"임을 밝혔다.

김유리(인도철학과)는 **'차명상(茶冥想)의 이해와 발전방안–인성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에서 "차명상은 불교적 가치를 통해 내면을 통찰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불성을 인성으로 환원한 인성교육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원(불교학과)은 **'〈법화경〉의 미학적 연구'**를 통해 "〈법화경〉을 미학적으로 이해하였을때, 문헌학 연구를 통해서는 밝히지 못했던 몇 가지 사실을 찾거나, 혹은 문헌학 연구들에 대해서 보충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면서 "불교미학(佛教美學)은 응용불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순수한 불교교학이나 사학의 영역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손현숙(미술사학과)의 **'조선시대 단청 연구'**는 단청의 개념사 정립과 조선시대 단청의 양식을 규명하고 단청의 규범과 위계적 특성을 파악했다. 또한 단청의 성격과 인식의 저변에 깔린 문화사적 의의를 고찰해 조선시대 단청의 전모를 밝혔다.

이밖에도 △**서병찬(응용불교학)**의 **'태국의 신흥불교에 관한 연구–Dhammakaya 사마디 깨우(Samathikeaw) 명상을 중심으로'** △**명오 스님(불교교학)**의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에 관한 통시적 연구'** △**명진 스님(유아교육학과)**의 **'한국불교설화기반 유아종교문화교육콘텐츠 연구'** △**수안 스님(사회복지학과)**의 **'노인의 연명치료 선호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원경 스님(사회복지학과)**의 **'한국 장사복지의 발전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등이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행선연구원 불교학 진흥사업 '눈길'

묘공학술상 · 장학생 공모
학술대회 · 발표회 개최도
3월 20일 한마음선원에서
올해 첫 계절발표회 개최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한 대규모 학술공모사업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대행선 사상 연구와 불교학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와 학술상, 장학금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의 법호인 '묘공'을 인용해 제정된 '묘공학술상' 공모는 올해에도 이어진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묘공학술상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생애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공모 분야는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와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다. 응모는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여야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원, 우수상 2면에게는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대상 수상 논문과 우수상 논문들은 연구원 학술지인 〈한마음연구〉에 게재되며, 또한 학술상 응모 논문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탈락된 논문들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한마음연구〉에 수록된다.

전문연구자들을 위한 묘공학술상 외에도 불교학, 선학 신진연구자들을 위해서는 '〈한마음연구〉 논문투고'를 통해 전문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마음연구〉에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게재비 40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한마음연구〉는 학진 등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학 연구자를 위한 '묘공학술장학생 선발 공모'도 이뤄진다. 대상자는 불교학, 대행선 관련 학위논문과 〈한마음연구〉 논문 투고를 준비하는 대학원 재학생과 수료자다. 선발 공모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모 신청방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행선 사상 선양과 진흥을 위한 학술적 연구를 발표하는 학술대회는 6월 19일 동국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연구자들을 초청해 연구발표를 듣는 계절발표회는 올해도 3 · 6 · 9 · 12월에 개최되며, 대행선과 불교학 관련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올해 첫 계절발표회는 3월 20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열린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밀교의 시각으로 본 대행 스님의 주인공-〈한마음요전〉을 통하여(강대현, 위덕대)'와 '한국불교의 사상적 전통과 한마음선원 석탑의 조형 의미(도윤수, 인하대)'가 발표된다.

논평자로 법우 스님(용월사 불교문화연구소장), 정성준(동국대), 이석환(동국대), 김기상(아리건설 대표)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백양사 아미타설법도' 보물 승격된다

문화재청 25일 지정 예고
복장유물 6건도 함께 지정
'비암사 극락보전' 보물로
세종시 최초 '보물'문화재

지난 2006년 환수된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291호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호남을 대표하는 고찰 백양사에서 300년 넘게 전래된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월 25일 밝혔다.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1994년 9월 도난됐으나, 2006년 9월 지금의 제자리로 환수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불화이다. 본존 아미타불이 여러 제자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1775년(영조 51) 백양사 극락전 아미타불상을 중수하면서 새롭게 조성한 작품이다.

수화승 색민을 비롯해 계헌 등 총 11명의 화승들이 참여하여 그린 작품으로, 승려 환월당 민숙이 외조모 유씨 부부와 부모 봉씨 부부가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며 주문 제작한 것이다. 승려가 이처럼 직접 대시주자(大施主者)로 나선 사례는 매우 드물다.


보물 지정 예정인 '백양사 아미타여래 설법도'

불화의 장황은 일부 개장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제작 당시의 원형에 큰 손상 없이 전래되고 있다. 본존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대 보살과 6위의 제자, 사천왕, 2위의 팔부중을 배치한 간략한 화면구성으로 2m가 넘는 긴 화면에 압도적으로 그려진 본존불, 날씬한 협시보살의 표현 등에서 장중함과 상승감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이는 수화승 색민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확인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색민이 그의 만년기에 그린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색민과 함께 그림 제작에 참여한 계헌의 입장에서는 첫 수화승이 되어 그린 작품으로 의겸-색민-계헌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의겸 화풍의 전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문화재청은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조선 후기 대표적 불화"라면서 "불화의 조성시기, 참여자 명단 등을 알려주는 발원문과 복장낭 등 복장유물 6건도 온전하게 잘 남아 있어 18세기 후반 불화 복장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지정 예고한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첫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비암사 극락보전'이 2월 23일 지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12년 특별자치시 승격 이후 건축문화재로는 처음으로 비암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물로 지정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된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을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



▶ 9회 예고
다르마는 빈두사라왕을 따라 반란이 일어난 탁실라로 떠난다. 탁실라 가는 길에 소국 왕들에게 환영받는다. 빈두사라왕은 마침내 탁실라의 반란을 진압한다. 다르마는 날마다 빈두사라왕의 옷에 묻은 피를 보다가 왕자를 낳는다.

왕자 잉태하고 전장 가는 왕비

다르마는 마침 비어 있는 별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별궁은 빈두사라왕의 침전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별궁에는 이전의 왕비가 사용하던 패물과 장롱 속의 옷가지가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그 왕비가 병사하자 빈두사라왕은 애석한 나머지 그녀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단 하나도 치우지 말라고 명했던 것이다.

별궁 앞에는 연못이 두 개나 있었다. 하나는 백련 연못이었고, 또 하나는 홍련 연못이었다. 일년 내내 흰 연꽃과 붉은 연꽃이 번갈아가며 피고 졌다. 마당가 정원과 후원에는 온갖 꽃들이 까치나 노랑할미새를 불러 들였다. 할미꽃 같은 선홍빛 파파벨라, 낮은 담을 덮은 부겐빌리아, 안개초, 절꽃(Temple Flower)이라 불리는 플루메리아 꽃 등이 꽃동산을 이뤘다. 특히 붉은 꽃이 별궁으로 드는 대문 앞에 떨어져 있을 때는 짬빠성의 고향집 생각이 났다. 다르마는 행복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자나사나와 빵갈로바뜨사를 떠올리며 고마워했다. 다르마가 왕비가 된 것은 두 수행자의 진심과 신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터였던 것이다. 다르마는 늙은 궁녀 한 명과 함께 플루메리아 흰 꽃을 줍고 있는 락슈미띳사를 불렀다. 그녀가 물었다.

"왕비님, 벌써 가실 거예요?"

"그 정도 꽃이면 공양 올리는 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

락슈미띳사가 들고 있는 바구니에는 플루메리아 흰 꽃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향기가 다르마의 코를 기분 좋게 자극했다. 아지비까교 사원으로 가서 빵갈로바뜨사에게 공양할 꽃이었다. 별궁 궁녀를 미리 보내 약속한 날이므로 빵갈로바뜨사는 사원에 있을 터였다. 다르마로서는 별궁에 들어온 이후 첫 외출이었다. 락슈미띳사가 말했다.

"왕비님, 제 생각으로는 대왕님께서 오실 것만 같은데 꼭 오늘 가셔야 돼요?"

"대왕님께서는 밤에 오시지 않느냐. 그러니 괜찮을 거야."

다르마는 호수 같은 푸른 비단 사리를 걸치고 있었다. 왕비가 되었을 때 빈두사라왕이 선물한 까시국에서 구해온 번들거리는 비단 사리였다. 다르마는 락슈미띳사를 앞세우고 아지비까교 사원이 있는 숲으로 갔다. 열려섯 번째 왕비가 온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사원 기도처에는 수행자들이 줄을 지어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

빵갈로바뜨사는 반얀나무 아래서 몇몇 수행자들과 함께 주문을 외우고 있는 중이었다. 다르마는 빵갈로바뜨사에게 먼저 가서 그의 발밑에 플루메리아꽃을 바쳤다. 꽃향기가 반얀나무 가지 사이로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빵갈로바뜨사가 매우 기뻐하며 뚱뚱한 몸을 일으켰다.

"왕비시여, 꽃공양이 아니라 향공양이구먼요."

"평소에 공양 받지 않으시니 향기로운 꽃을 모아 왔습니다."

"대왕님께서 날마다 끼니공양을 올리시니 저희들은 필요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를 궁으로 인도하신 구루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왕비시여, 자나사나와 저는 왕비님의 운명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빵갈로바뜨사는 다르마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의 예언대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그런데 다르마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다.

"왕비시여,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흐르면 뵙지 못할 것 같아서 서둘러 왔습니다."

"대왕님께서 또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빈두사라왕은 소국을 정복할 때는 반드시 왕비를 한 명 데리고 떠났는데 이번에는 다르마 차례인가 싶어 물었다.

"당장에 떠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기도할 때입니다. 제 눈에 대왕님과 왕비님이 북서쪽으로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우리아왕국을 세운 짠드라굽따 선왕이 정복한 탁실라는 빠딸리뿌뜨라에서 북서쪽에 있었다. 먼 곳이어서 반란이나 소요가 자주 일어나는 소국이었다. 빈두사라왕이 탁실라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까닭은 선왕의 비원이 서려 있기 때문이었다. 짠드라굽따 왕이 탁실라에서 알렉산더가 남기고 간 침략군을 마저 진압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우리아왕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탁실라를 잃거나 소요를 방치한다면 선왕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백성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왕의 권위는 추락할 것이 뻔했다.

"구루시여,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저는 당분간 구루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옆에 있던 락슈미띳사도 처음 듣는 말이어서 빵갈로바뜨사 못지않게 궁금했다. 빵갈로바뜨사가 다시 말했다.

"왕비시여,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빠딸리뿌뜨라가 좋으니까 떠나기 싫습니다.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빵갈로바뜨사는 다르마를 돕고 싶어서 물었다. 그러나 다르마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지 못했다. 그제야 영리한 락슈미띳사는 다르마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빵갈로바뜨사를 당분간 만나지 못할 만한 변화가 있음이 분명했다.

"구루시여, 제 운명을 다 아시면서 어째서 저에게 생긴 변화는 알지 못하십니까?"

"저의 수행이 부족해서 그러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을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원을 참배했으니 저는 이만 별궁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지비까교 사원을 나온 다르마와 락슈미띳사는 바로 별궁으로 가지 않고 예전에 강가강을 바라보곤 했던 궁중정원 언덕으로 올라갔다. 부겐빌리아 가지들이 덩굴처럼 얽혀 있어 은밀한 곳이었다.



"강가강을 보고 싶어."

"예, 왕비님."

부겐빌리아꽃들이 풀밭에 떨어져 꽃방석에 앉는 느낌이 들었다. 락슈미띳사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왕비님, 좋은 변화예요, 나쁜 변화인가요?"

"좋은 변화이지."

다르마가 갑자기 푸른 비단 사리를 가슴 위로 걷어 올렸다. 락슈미띳사가 비명을 질렀다.

"어머나!"

"내 배를 좀 봐."

다르마의 배는 이미 볼록했다. 왕자를 잉태하고 있었다. 락슈미띳사는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다.

"천한 제가 봐서는 안 되겠어요, 왕비님."

"넌 내 수족과 같으니 괜찮아."

"아니에요, 대왕님께서 아신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한 걸."

"하늘이 보고 강가강이 봤어요."

"락슈미띳사여, 내가 허락했으니 괜찮을 거야. 다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다르마가 왕자를 잉태했다는 소문이 나면 다른 왕비들의 견제가 심해질 수도 있었다. 특히 '빠빠왕비'가 자신의 궁녀들에게 지시하여 모사를 꾸밀 것이 틀림없었다.

"강가강은 우리의 엄마니까 다 눈감아 주실 거야. 자, 더 가까이 와봐."

다르마가 락슈미띳사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배에 댔다. 락슈미띳사는 뿌리쳤으나 그녀의 손은 이미 다르마의 배에 닿아 있었다.

"왕자가 발로 툭툭 차고 있어."

"네. 느껴져요."

"다섯 달 정도 남았어."

"왕비님, 이제야 알았어요. 왕비님께서 왜 빵갈로바뜨사 구루를 서둘러 만나시려고 했는지요."

"왕자님이 더 자라면 배가 불러 어떻게 다니겠어.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이제는 외출하시지 마셔요."

다르마는 배가 부르면 소문이 나 다른 왕비들의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락슈미띳사가 강가강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했다. 그 사이에 다르마는 서너 걸음 앞서 별궁으로 내려갔다. 락슈미띳사가 뛰듯이 잰 걸음으로 뒤따라갔다. 다르마가 입고 있는 비단 사리에는 부겐빌리아꽃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왕비님 사리에 꽃들이 붙어 있어요. 뗄까요?"

"아니, 내가 뗄게."

아무리 시중드는 시녀라 하더라도 왕비의 몸에 천한 수드라 신분의 궁녀가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일그러진 흰 꽃은 떨어지지 않았다.

"얼룩이 지겠어요, 왕비님."

"그럼, 네가 떼어다오."

락슈미띳사가 사리에 붙은 꽃들을 떼었다. 별궁으로 돌아온 다르마는 대나무 침대에 누워 쉬었다. 왕자를 잉태해서 그런지 아지비까교 사원을 들렀다가 궁중정원 언덕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리도 힘들었다. 락슈미띳사가 끓여온 짜이 한 잔을 하고 나서야 대나무 침대에서 짧지만 깊은 낮잠을 잤다.

그날 밤 빈두사라왕이 별궁에 들었다. 순간 다르마는 빵갈로바뜨사의 예언이 생각나 긴장했다. 빈두사라왕과 다르마가 북서쪽으로 떠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던 것이다. 다르마는 빈두사라왕의 입을 주시했다.

"왕비여, 요즘 어떻게 보내고 있소?"

"왕자님에게 새소리도 들려주고 꽃도 보여주고 있사옵니다. 제가 새소리를 들으면 뱃속의 왕자님도 듣고 제가 꽃을 보면 왕자님도 꽃을 본답니다."

"허허허."

빈두사라왕은 태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다르마가 뱃속의 왕자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말에 감격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시오. 나 역시 왕자를 위해 다 들어주리다."

"매운 칠리소스를 먹고 싶사옵니다."

"왕자가 맵다고 하지 않겠소? 하하하."

빈두사라왕은 별궁에서 밤을 보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다르마의 배를 만져 보곤 했다. 이른 새벽쯤이었다. 빈두사라왕이 침대 머리맡에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서 있었다. 다르마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 물었다.

"궁에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있지요."

"불길한 일이옵니까?"

"어제 신하로부터 탁실라에 소요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소."

"그럼 탁실라로 가실 것이옵니까?"

"선왕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가야 하오."

다르마는 빵갈로바뜨사의 예언에 소름이 끼쳤다. 그래도 자신은 궁에 남고 싶었다. 먼 길을 가다가 뱃속의 왕자가 유산될지도 몰랐다.

"저는요?"

"물론 함께 가야 하오."

"왜 가야 합니까?"

"내가 없는 빠딸리뿌뜨라 성은 위험하오. 무슨 음모가 꾸며질지 모르오. 그러니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왕자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오."

"언제 떠납니까?"

"출발 날짜는 비밀이오."

다르마는 눈앞이 노래졌다. 짬빠성에서 아주 먼 곳으로 떠난다니 그만큼 충격이 더 컸다. 빈두사라왕은 곧 궁으로 돌아갔다. 혼자 남은 다르마는 대나무 침대에 혼절하듯 쓰러졌다. 락슈미띳사가 뛰어 들어와 흔들었지만 일어나지 못했다. 아침 해가 강가강에 난반사할 무렵에야 다르마는 일어났다. 외성 안에 갑자기 불어난 군사들의 구령소리가 내성 안까지 들려왔다. 각 소국에서 차출한 장졸들이었다. 탁실라 소요를 진압하기 위한 정예군이었다.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는 내성 안에서 따로 진압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계속〉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❹ 〈가전연경〉의 정견과 선



▶ 한줄 요약
중도 정견으로 보면 자타불이, 무차별 나와

중도법 속에 만류귀종

〈萬流歸宗〉


석굴암 내 가전연존자상을 판각한 판화.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교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방대한 경전이 있다. 기독교는 성경, 회교는 코란, 그리고 유교는 사서삼경으로 간단하나, 불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전이 있다고 하여 팔만대장경이라 한다. 불교의 방대한 경전은 다양하고 풍부한 가르침의 장점이 있으나, 너무 방대하여 초심자들이 불교 공부에 혼란이 없지 않다. 이런 까닭에 선에서는 말을 끊고 문자를 떠나 바로 마음을 보라 한다.

하지만, 초심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너무나 많은 경전이 있고, 또 부처님 제자들의 논소와 어록까지 있으니 어느 경전과 어록을 보아야 하는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기 경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경전은 〈초전법륜경〉이고, 그 다음이 〈가전연경〉이다. 둘 다 짧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하여 가장 근본이 되는 경전이다.

〈가전연경〉에서 중도 정견

〈가전연경〉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 논리 제일 가전연 존자가 부처님께 바른 견해인 정견에 대하여 묻고 답한 경전이다. 가전연 존자는 설법 제일 부루나존자가 의견을 구할 정도로 불교의 논리에 밝은 분이었다. 이 〈가전연경〉은 한문역으로는 〈잡아함경〉에 수록되어 있고, 팔리어로는 〈Kaccāyanagotta Sutta〉로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가전연 존자가 부처님께 묻는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견해, 정견(正見)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이 답한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있음(有)' 과 '없음(無)' 이다.…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고 본다면 세상에 '없음' 은 있을 수 없으며,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면 세상이 '있음'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 두 극단을 떠나 중도(中道)를 말하는 것이다."

이 〈가전연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정견은 바로 중도를 말한다. 부처님이 깨치고 처음으로 설법한 초전법륜에서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를 말씀하시고 중도가 곧 팔정도라 하셨다. 부처님은 이 가전연과의 문답에서도 역시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를 말씀하시고 중도가 곧 정견이라 하신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으로 보아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이고, 중도는 곧 팔정도이며, 팔정도의 정견이 양극단을 떠난 중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도 정견이 곧 연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가전연경〉에서 정견이 중도라 말하면서 덧붙여 연기도 말씀하신다.

"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즉 무명(無明)을 인연하여 행이 있고…순전히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발생하며,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행이 소멸하고…순전히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소멸하느니라."

이 〈가전연경〉의 부처님 말씀을 보건데 불교의 정견이란 양극단을 떠난 중도이고, 중도 정견은 연기로 봄이라 하였다. 즉, 중도 정견은 나와 우주 만물이 서로서로 이지하여 존재한다는 연기라는 것이다.

연기(緣起)란 세상 만물이 서로 서로 의지해서 존재함을 말한다. 우주 만물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니 개별로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가령 괴로움도 일어나고 사라진다. 어떤 괴로움도 영원한 것은 없다. 생로병사도 그렇다. '생로병사하는 나' 라는 존재도 '나' 라 할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생존한다. 단 한 순간도 산소를 마시지 못하면 내가 생존할 수 없다. 나의 생존에 산소와 물 등은 필수조건이고 이것이 곧 연기적 존재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를 비롯한 우주 만물은 독립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것을 부처님은 다른 경전에서 무아(無我), 무상(無相)이라 하셨고 대승불교에서는 공(空)이라 한다.

이렇게 볼 때 부처님은 〈초전법륜경〉과 〈가전연경〉에서 불교의 근본 교리를 다 말씀하셨다. 실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중에서 〈초전법륜경〉은 가장 먼저 설법하신 것이니 그 가치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이 〈가전연경〉은 부처님께서 정견(正見)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유일한 경전이다. 대승운동을 일으킨 용수보살이 상좌부승가의 법에 집착하는 견해를 소승이라 비판하고 중도를 복원할 때 저술한 〈중론(中論)〉에서 경전 중 유일하게 인용한 경전이 〈가전연경〉일 정도로 대승에서도 가장 근본이 된다.

더 나아가 부처님이 가신 후 2500년이 넘은 1967년 해인총림에서 성철스님은 〈백일법문〉을 통하여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가전연경〉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니 〈가전연경〉은 초기 경전과 대승, 그리고 선종에서도 공히 근본이 되는 경전이라 할 수 있겠다.

중도 정견이 불교 공부 시작이자 완성

불교를 통하여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 대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연기로 보는 정견을 갖춰야 한다. 나와 세상 만물이 연기로 존재하며, 연기로 존재하는 만물은 실체가 없으니 무아고, 나라고 할 것이 없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없으니 이를 중도 정견이라 한다.

우리 인류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려면 중도와 연기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정견을 세워야 한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로 보는 정견 없이는 수행도 사업도 인간 관계도 연애도 주식 투자도 잘 할 수가 없다.

양극단을 여읜 중도는 정견의 또다른 이름
사회 편향 견해 제거, 존중과 배려 원동력
우주 만물 독립적 실체없이 연기로 존재해
중도 연기에서 초기·대승·선 하나로 회통

우리는 흔히 '내가 있다' '나의 것이 있다' 고 생각하고 집착한다. 나와 나의 것이 있다는 '있음' 에 집착하면 병들고 늙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게 된다. 지금 같이 코로나 역병시대에는 바이러스 병과 죽음에 공포를 느끼고 괴로움을 받는다. 만약 코로나 역병을 정견하면 어떻게 되는가? 코로나도 중도 연기로 정견하면 코로나도 연기로 존재하고 나도 연기로 존재하니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 코로나도 생기고 사라지며 인연 따라 나도 연기로 존재할 뿐이다.

다만, 코로나는 전염성이 강하고 인류가 처음 만난 바이러스라 사람에게 붙으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에게는 부작용이 일어나 호흡에 문제가 생기고 열이 나서 적절한 치료나 대책이 없으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코로나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고 피하려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가지 말고 가야 할 경우 마스크와 손씻기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처럼 방역을 잘 대처하고 국민들이 잘 실천하면 역병의 억제가 가능하다.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것이 없다.

물론, 신을 믿는 일부 종교인들이 "코로나에 걸려도 신이 낫게 한다"거나 "신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할 것이다"라는 편향된 견해에 빠져 방역지침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동하여 집단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을 자주 본다. 이것이 바로 정견을 모르고 삿된 소견에 빠져 일어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불교 소승의 법집 문제

초기 경전 중 〈초전법륜경〉과 〈가전연경〉의 중도 정견의 가르침은 대승과 선종에서까지 근본으로 보고 중시하였는데, 어째서 이 경전과 중도 정견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접하기 어려웠을까?

부처님이 가시고, 그 직계 제자들도 가신 뒤 부처님의 중도 정견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자 제자들 사이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법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게 된다.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당시 상좌부 승가는 중도 정견을 세우지 못하고 부처님이 깨친 법이 '있다(有)' 고 보는 편향된 견해가 다수의 입장이 된다. 이것이 상좌부승가의 '법유론(法有論)' 이다. 부처님은 ' 있음 '과 없음' 의 양변을 떠나 중도를 깨치고, 중도로 보는 것이 정견인데, 상좌부 승가는 법을 있다고 보는 양변에 떨어져 시비 분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법유론의 양변에 집착하여 법을 설하고 행하는 입장을 '소승(小乘)' 이라 비판하고 불교의 근본인 중도 정견을 복원한 것이 바로 '대승(大乘)' 인 것이다.

중도 정견, 연기가 선

6세기에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동아시아로 전한 선도 부처님이 깨치고 말씀하신 중도 정견과 둘이 아니다. 동아시아 선종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초기 경전의 중도와 정견이 바로 선이다. 불교의 중도 정견과 선의 상관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둘은 별개의 것이고 다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불교는 인도에서 출현했고, 선은 중국에서 나타났으니 다르다고 분별하고 집착하면 양변에 빠져 대립하고 갈등이 일어난다. 지금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자들 사이의 갈등이 그런 것이다.

반대로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와 연기의 눈으로 보는 정견이 서면, 부처님 말씀과 용수보살, 그리고 조사의 말씀이 둘이 아닌 중도불이(中道不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연기법을 이해해서 바른 안목인 정견이 서면,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 그리고 선어록이 둘이 아니라 중도법을 근본으로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강이든 낙동강이든 압록강이든 바다로 가면 하나이듯이 말이다.

이와 같이 중도 정견으로 보는 사람은 남을 나와 같이 보아 차별하지 않고 배려 존중한다. 설사 종교와 인종, 국적과 신분이 달라도 모두 연기적 존재이니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난다.

다음에는 대승 경전을 대표하는 금강경과 선에 대하여 살펴보자.

〈불교인재원 교수〉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④ 〈석보상절〉 서문에 담긴 것



▶ 한줄요약

〈석보상절〉 서문은 〈월인석보〉 1권에 전해지는 내용으로 읽어 보았다. 짧은 서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훈민정음과 불교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담겨 있다.

'석보상절', 훈민정음에 날개 달다



그림 · 강병호

훈민정음 활용 첫 산문 작품
1권 전승 안돼 '차례'는 추정
서문, 수양대군이 직접 저술
짧은 내용에 많은 코드 담겨

〈석보상절〉 제목의 의미

이름 지어 가로되 '석보상절(釋譜詳節)'이라 하고 이미 차례를 헤아려 만든 바에 따라서 세존의 도리 이루신 모습(팔상도)을 그리고

네 번째 《석보상절》 이야기는 '석보상절' 의 뜻을 친절하게 훈민정음으로 풀이하고 이 책의 간행 목적, 그리고 《석보상절》 완성을 정확하게 기록한 중요한 내용의 결정체가 들어있는 '석보상절 서문' 의 마지막 부분이다.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첫 책은 12부 수다라에서 철저히 가려 뽑아 〈석보상절〉이라고 하였는데 사전역할을 하는 협주에 그 설명이 상세하다.

곧 석가모니의 '석(釋)', 일대기의 '보(譜)', 상세히 할 경전과 중요한 내용은 자세히 할 '상(詳)',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절약할 '절(節)' 이라 하여, '석보상절(釋譜詳節)' 로 이름 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용의주도한 세종과 그 아들 수양대군의 의도대로 훈민정음 학습서 겸 불교 홍포 목표를 겸하여 책의 목차도 면밀히 정했다. 애석하게도 〈석보상절〉 1권이 전하지 않지만 그 내용이 들어있는 〈월인석보〉에 준해 석보상절의 차례를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석보상절 차례〉(추정)

① 훈민정음 서문과 예의 ② 팔상도 ③ 석보상절 서 ④ 석보상절 본문

이러한 차례에 따라 먼저 '훈민정음' 을 학습하고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정교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팔상도〉를 그렸다.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여덟 가지로 정리한 '도솔래의' 부터 '쌍림열반' 에 이르는 '팔상도' 로 전체 개요를 이해한 뒤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석보상절을 한 글자씩 짚어가며 공부하도록 만들었다.

〈팔상도〉의 그림

①도솔천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와 어머니 마야부인의 태몽으로 그려진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②카필라국 룸비니 동산에 태어난 모습의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③생로병사의 모습을 맞닥뜨리며 관찰하는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④궁궐의 성문을 넘어 출가하는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⑤깨달음을 얻기 위해 설산에서 수도하는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⑥보리수 아래 수행정진 중 마구니의 항복을 받아내는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⑦녹야원에서 진리의 바퀴를 굴리는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⑧사라나무 사이에서 열반하는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팔상도와 석보상절 서문이 수록된 서강대본 〈월인석보〉 제1권의 '쌍림열반상' 은 애석하게도 떨어져 나갔는데 다른 책의 '팔상도' 에서 보충할 수 있다. 그 후 이 '팔상도' 는 조선시대 불화의 주요 저본이 되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석보상절〉과 '훈민정음'의 목적은

'팔상도' 의 여덟 가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석보상절 책의 서문이 등장한다. 우리가 어릴 적 처음 글자를 익혀 한글을 떼면 그림책으로 넘어가듯이 그림으로 석가모니 일대기를 학습하면 만나는 최초의 산문 문장이 바로 〈석보상절〉 서문이다.

또 훈민정음으로써 그에 따라 더 번역하여 새기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 삼보에 나아가 의지(귀의)하기를 바라노라.

이제 조선의 백성들이여, 훈민정음을 가지고서 중국 글자가 아닌 우리 글자로 더 자세히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알기 쉽게 부처의 일대기에 대한 책을 만들었으니 배우고자 하는 사람마다 쉽게 이해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기를 간곡히 바라 마지않는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장이지 않은가. 그렇다. 〈훈민정음〉 서문의 마지막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던 세종의 문체 그대로이다. 그렇다면 이 서문은 세종의 문체인가, 수양대군의 문체인가, 왕의 연설문에 나타나는 전래 형식의 문체인가. 이 또한 집단지성의 힘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석보상절〉의 역사적 기록

〈석보상절〉을 읽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1447년을 기억해야 한다. 이해에 비로소 훈민정음이 물속의 고기처럼 자유자재해졌다는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험해 온 짧은 운문 〈용비어천가〉(1445)에서 드디어 장편 24권의 산문 책 〈석보상절〉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쩌면 음력 1446년 9월 상순을 양력으로 환산한 지금의 '한글날' 만큼이나 훈민정음의 최종 완성을 기록한 석보상절의 1447년 음력 7월 25일을 기념해야할 지도 모른다. 반포일도 물론 중요하다. 그 반포한 글자로 길고 긴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완성하고 나서 서문을 또박또박 써내려간 그 날이야말로 훈민정음에 날개를 단 날이다. 그것이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통 12년(1447년) 7월 25일에 수양군이 서문을 쓰노라(正統 十二年 七月 二十五日에 首陽君 諱 序ᄒᆞ노라)

그리고 마지막 기록 1447년 음력 7월 25일에 세종의 둘째 아들 왕자 수양군 유(瑈)가 서문을 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쓰지 않고 휘(諱)라고 기록한다. 왕이나 그에 준해 높여야 할 인물의 이름을 우리는 피휘(避諱)한다고 한다. 즉 직접 이름자를 쓰는 것을 불경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왕자 자신이 자기 이름을 쓰면서 피휘를 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 시대의 관례였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실제 〈석보상절〉의 저본으로 추정되는 '증수석가보' 를 지은 김수온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석보상절〉의 짧은 서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훈민정음과 불교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꼬리를 무는 궁금증 그리고 조선시대 불교 수용의 배경과 역사, 왕들의 개성과 성격 등 무수한 다빈치 코드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은하수를 이루고 있다. 이제 그 '석보상절 서문' 의 유려한 문장을 수양대군의 목소리로 다시 음미해보자. 잠시 수양대군이 되어 염송해도 좋겠다.

〈석보상절 서〉

부처께서 삼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니

그지없어 못내 헤아릴 공과 덕은

사람들과 하늘들이 내내 (다) 기리지 못하는 바이시다.

세간의 부처 도리를 배우려고 하는 이가 (있어도)

부처 태어나 다니시며(활동) 가만히 계시던(입종) 처음부터 마지막 까지 아는 이가 드무니

비록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또 팔상도에 나오는 그림을 넘지 못하고 마느니라.

세종께서 나(수양대군)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천追薦(소헌왕후 극락왕생)이 경전을 옮겨 쓰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네가 석보를 만들어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근래에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이때까지 (나온) 여러 경전에서 가려내어

각별히 한 책을 만들어 이름 지어 가로되

석보상절(釋譜詳節)이라 하고

이미 차례를 헤아려 만든 바에 따라서

세존의 도리 이루신 모습(팔상도)을 그리고

또 훈민정음으로써 그에 따라 더 번역하여 새기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 삼보에 나아가 의지(귀의)하기를 바라노라.

정통 12년(1447년) 7월 25일에 수양군이 서문을 쓰노라.

〈석보상절〉 서문은 〈월인석보〉 1권에 전해지는 내용으로 읽어 보았다.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석보상절〉을 읽어 나간다. 현재 〈석보상절〉 3권부터 전해지고 있지만 조선 최초 훈민정음 불경을 함께 염송하는 공덕으로 1권과 2권이 꼭 출현하기를 발원한다. 석보상절 3권은 싯다르타 태자가 탄생하여 아버지 정반왕이 이름을 짓는 이야기부터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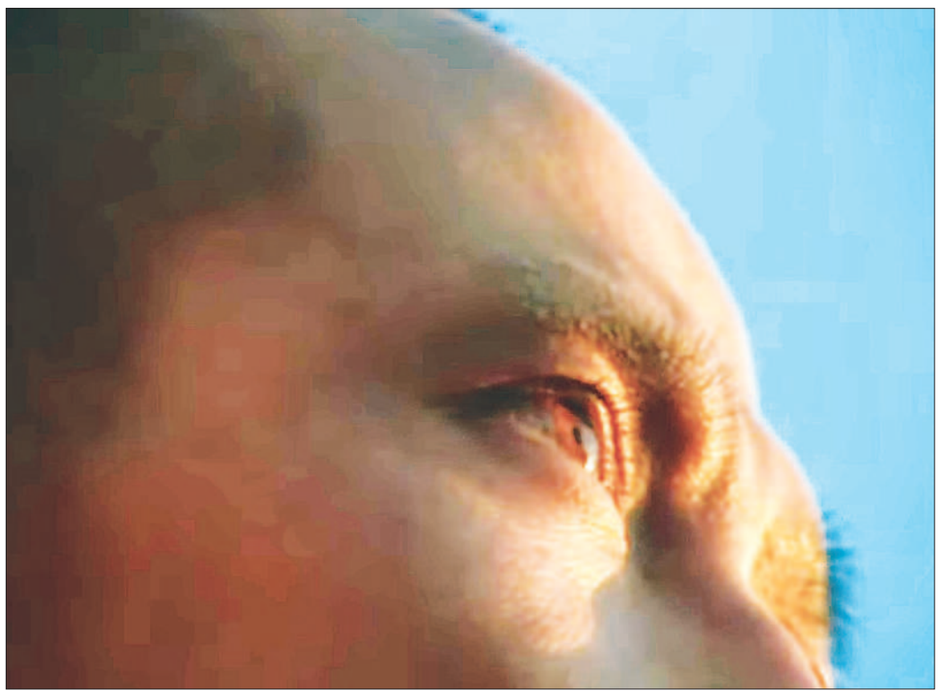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김혜신의 시네마 만다라 ❷ 배용균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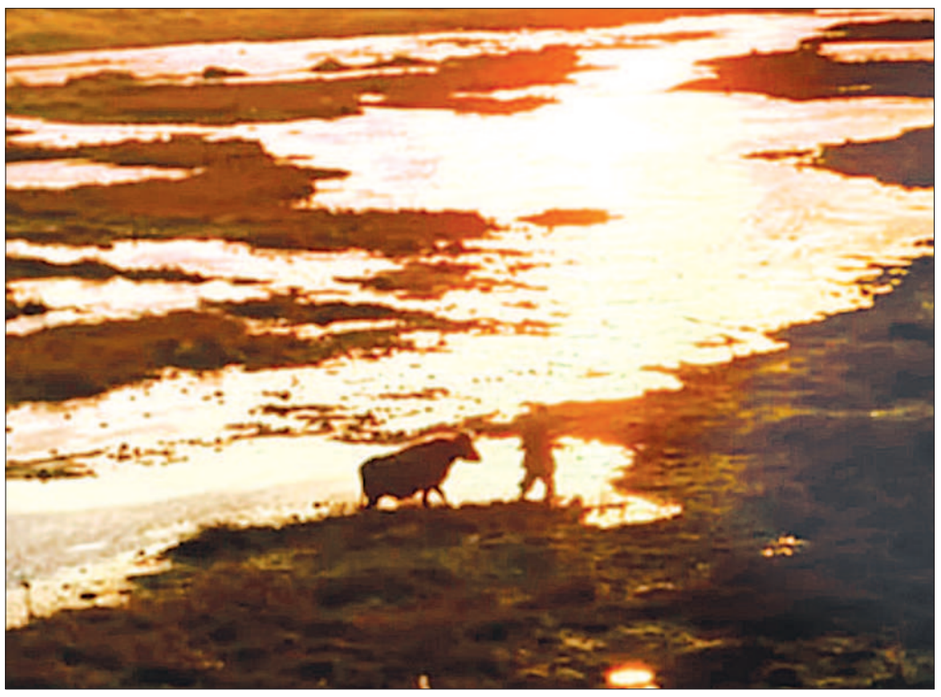


▶ 한줄 요약
1989년 첫 선을 보인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은 국내외 영화제에 공히 인정받은 수작이다. 영화를 거듭 보면서 오래전부터 자문해오던 심우도와 작품의 관계, 그리고 이미지 자체에 좀 더 집중하게 됐다. 이번 연재에서는 심우도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보고자 한다.

禪언어로 그려낸 '영화적 심우도'



심우도의 '반본환원 (返本還源)' 경지에 비견할, 본래의 공(空)한 세계를 보는 형상.



심우도의 〈입전수수〉로 가는 도정. 빛 속에서 무애한 발걸음으로 걷는 기봉과 소.

1989년 첫선을 보인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Why Has Bodhi-Dharma Left For the East?, 이하 달마)〉의 디지털 복원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평소 말을 아끼는 배용균 감독은 이를 위해 지난 1월 한국영상자료원의 색재현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복원팀에게 주요 이미지에 담긴 자신의 의도를 밝힌 바 있다.

가령 "기봉의 승복 색이 추한 회색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계곡 물살의 색이 더욱 힘이 느껴졌으면 합니다" 혹은 "석양의 빛줄기가 굽이치며 아래로 내려오는 하이라이트 띠 부분이 뚜렷이 더 밝게 표현되었으면 합니다"와 같은 코멘트가 포함돼 있다.(2021년 2월 한국영상자료원 자료 참조) 이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하나의 귀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영화 속 세 주인공인 동자승 해진, 비참한 속세를 등지고 출가한 젊은 기봉, 용맹정진하여 해탈의 경지에 가까워진 노스님 혜곡, 이들을 표현하는 '추하지 않은' 승복색이나 모든 것을 정화하고 비울 수 있게 하는 세찬 계곡 물살 속 수행 장면, 그리고 천지가 고요하고도 성성한 마음의 빛이 끝없이 퍼지는 형언할 수 없는 '대적광(大寂光)'의 세계를 표현한 장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용균의 〈달마〉는 말로 표현이 불가하고 마음으로 직접 전해져야만 하는 선(禪)적인 영화이므로, 응당 승복 색깔의 톤이나 빛과 어둠의 콘트라스트와 긴장감, 새하얀 물살의 정화력, 혹은 노을빛에 물들어 자유로이 떠가는 구름의 표정마저 그만큼 중요해진다. 이는 몇몇 이들이 오해하듯 단순한 매너리즘이나 심미적 집착이 아니다. 영화는 오프닝에서 인용하듯, 부처님과 가섭 존자 사이에 오가는 '염화미소(拈花微笑)'처럼 말을 떠나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달마〉와 심우도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영화의 판본은 크게 세 가지 △한국 극장판 135분 △미국 마일스톤 DVD 출시 감독판 145분 △한국 VHS 2시간 55분)인데, 이 글은 온라인에서도 영어 자막 버전으로 공개돼 있는 2시간 55분 버전에 바탕을 두겠다. 진행중인 복원작업도 이 러닝타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근래 〈달마〉를 거듭 보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자문해오던 심우도와 작품의 관계, 그리고 이미지 자체에 좀 더 집중하게 됐다. 그리고 이 관찰의 과정에서 소의 이미지는 작품의 한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작품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연유로 여기에서는 심우도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보고자 한다.

소의 형상은 두세 장면 제외하고 가시적으로 뚜렷이 잘 안 들어올 수 있으나, 소는 작품의 초반에서 엔딩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도처에 있다. 심우도 혹은 십우도(十牛圖)는 잘 알려진 대로, 불교의 선종에서 수행자가 자신의 본성 혹은 불성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소를 길들이는 일에 비유하여 그린 선화이다. 일반적으로 선 수행의 과정을 흔히 소와 동자의 관계로 나타내고 열 단계로 나누어 도해하는데, 한국에서는 곽암의 도상이 더 알려져 있다.

영화 속 인물들에게 소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출현한다. 돌팔매질로 잡은 새를 통해 생사의 두려움과 죄책감의 엄청난 무게를 처음으로 겪게 되는 해진 동자의 경우,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에 소는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해진의 입장에서 '견우(見牛)'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소는 앞장서서 길을 찾아주는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 나타났다 사라진다. 기봉에게, '소'는 그의 수행 여정 전체에 걸쳐 더욱 다양하게 편재(遍在)한다.

기봉은 사바세계에서 가난과 인륜의 무게에 짓눌려 지내다 마침내 "존재의 자유"를 찾아 출가를 감행한 청년이다. 그는 병든 어머니와 용맹정진하여 깨쳐야 할 화두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는 엔딩 장면을 비롯한 한두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주로 어둠 속에서 형체를 온전히 알아보기 어렵게 아주 잠깐씩 흔들리며 나타난다. 따라서 관객들은 극도로 집중하지 않으면 숨은 이미지들을 놓쳐버리기 쉽다. 소는 어둠 속에서 수행자를 바라보는 눈동자로도 그려지고 크고 작은 여러 뉘앙스의 워낭소리나 불안스레 수풀을 어지러이 밟고 지나는 발소리로도 그 존재를 알린다. 여기에서 소의 시각적 이미지뿐 아니라 청각적 이미지는 중요하다.

국내외서 공히 인정받은 秀作
해진 · 기봉에 보이는 牛 형상
'존재의 진면목' 찾는 과정들
심우도 10단계 여정과 맞닿아

기봉의 소는 자주, 산사의 스산한 밤바람이 이는 나뭇가지 사이로 야생적이고 거친 몸짓으로 서성인다. 이 형상은 약봉지도 어렵사리 찾는 눈먼 어머니와 가장의 책임을 짊어진 여동생을 저버리고 출가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한편 대자유의 빛을 찾아 정진하려는 뜻을 꺾을 수는 없는 기봉의 혼돈스런 내면, 즉 그의 의구심과 갈피를 못 잡는 내면 풍경과 일치한다. 이때 카메라는 고삐 풀린 소의 움직임처럼 제어되지 않고 흔들린다. 깊은 갈등과 고뇌, 이와 싸우며 정진하려고 애쓰는 데서 나오는 정신적 분투의 에너지는 그 자체가 〈달마〉의 요체 중 하나가 아닌가 한다. 시간상 그보다 앞서는 회고 장면에서 불가에 들어와 가사를 입은 초심자의 마음가짐과 결기 어린 발걸음이 우직한 소의 그것을 닮게 느릿하고 투박하게 카메라에 잡히는데, 이 또한 우연이 아닌 의식적 묘사로 보인다.

이 작품에서 특이한 것은, 존재의 진면목(眞面目)을 찾아가는 도정을 단계별로 상징화한 심우도를 영화적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소는 인물의 구도 과정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 이상이며, 그것이 작중 인물과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새로운 심우도가 태어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봉이 이전과 달라진 시선으로 천지만물의 본 모습을 깨우치게 됨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은, 기봉의 모습이 소의 눈 혹은 소의 얼굴과 하나로 합쳐지는 새로운 형상을 통해서이다.(사진1 참조) 여기에서 소는 인물과 둘이 아니라 거의 한 몸이 된다. 저 앵글의 탐색과 조명, 피부색의 표현은 명징한 의식의 소산이다. 소와 수행자의 합일 상태를 영화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이 작업은 단순히 심미적인 조탁과는 분명 결이 다르다. 이 시야가 탁 트인 눈동자(어두운 수풀 속에서 수행자를 바라보던 소의 눈망울과 대비되는)와 형용할 수 없는 진여(眞如) 세계의 목도를 빼고 나면, 대사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작품의 정수는 무엇인가? 대사나 서사는 여기에서 보조적이고, 화두처럼 하나의 질문으로만 작용한다.

마음달이 차오를 때, 나의 주인공은?

이 영화 속에서는 두 개의 질문 즉 화두가 나란히 가다 영화의 말미에서 하나로 만나게 된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라는 영화 전체의 화두, 그리고 정진을 통해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인공의 존재론적 화두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화두는 모두 일견 방향을 묻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방향에 대한 답을 구한다기보다 방향에 대한 고정관념과 분별의 허망함을 역설적으로 묻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동쪽으로든 서쪽으로 부터든 방향성 자체나 장소 이동에 문제의 열쇠가 있는 경우는 아니리라. 혜곡의 다비식을 마치고 절을 떠나는 기봉의 등 뒤로 "스님 어디로 가세요"라고 묻는 해진에게 기봉은 말없이 눈을 들어 노을에 물든 하늘의 구름을 응시한다.

심우도의 단계로 보자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대중 속으로 돌아가 보살행을 하는 '입전수수(入廛垂手)'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이미지를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자칫 우리는 주인공의 '마음달'이 흐르는 물속으로부터 조금의 일그러짐이나 깨어짐 없이 차올라 마침내, 온 세상을 밝히게 되는 순간의 장엄함을 간과하기 쉽다.

"석양의 빛줄기"가 지상으로 내리는 시간, 수행자의 마음달은 온전히 솟아오르며 빛을 더한다. 수행자에게 하나의 장애이던 '물'은 이제, 마음의 달빛과 석양의 빛을 만나게 하면서, 무량한 광명과 적멸(寂滅)의 순간을 담고 반짝인다. 마지막 장면에 현전하는 이 빛은, 산사와 정반대의 세계인 줄 알았던 기봉이 떠나왔던 세간의 오물과 왁자지껄함과 누추함으로 가득한 (영화의 시작과 중간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장면까지도 또 다른 의미와 아름다움으로 화하게 하는 듯하다. 이 진여와 충만한 생(生)의 순간을 표현한 이미지는 그 자체로 작품의 존재 이유가 된다.

이번 시네마 만다라에서는 심우도를 길잡이 삼아, 배용균의 영화 이미지 자체를 있는 그대로 주의 깊게 보려고 해보았다. 〈달마〉는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건축된 안동 봉정사의 영산암에서 주로 촬영됐다. 이 작품은 깊은 존재론적 성찰과 그 이미지 창조력 면에서 그 가치를 높이 살만 하다. 한국영화 70주년에 〈달마〉는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분야에 초청을 받았고 이어 스위스 로카르노영화제에서 황금표범상을 받았다. 한국영화가 서구 유수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첫 예로 기억된다.

〈영화 · 문화평론가〉

성문 해탈 구경경지 아님을 깨닫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⑧ 희유한 법을 들은 감동

그때 혜명수보리와 마하가전연과 마하가섭과 마하목건련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일찍이 없던 법과, 세존께서 사리불에 아뉴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리라는 수기를 주시는 것을 듣고,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어 뛸 듯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어, 정성스런 자세로 합장하고 몸을 굽혀 공경하면서 부처님 얼굴을 우러러보고 여쭈었다.

"저희가 비록 승가의 윗자리에 있으나 모두 노쇠하여 더는 감당할 힘이 없다고 여겨, 아뉴다라삼먁삼보리를 구하지 않았나이다. 세존께서 예전에 한동안 설법을 하실 적에 그때 저희들이 그 자리 있었으면서도 몸이 지쳐 오직 공(空)과 무상(無常), 무작(無作)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보살이 법의 신통 속에 노닐며 불국토를 정화하며 중생 성취하는 일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를 벗어나 열반의 깨달음 얻도록 해주셨다고 여겼으며, 또 이제 저희들이 이미 많이 늙은 탓에, 부처님이 보살들을 교화하시는 아뉴다라삼먁삼보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나이다.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 아뉴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리라는 수기 주시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 경탄하니 이제야 문득 이렇게 희유한 법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나이다. 크고 좋은 이익 얻은 것을 깊이 기뻐하나니, 무량한 보배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얻게 되었나이다."

이 대목은 수보리를 위시한 네 제자가 법화 법문을 듣고 감격해하는 장면이다. 승가의 대표 격으로 상석(上席)에 앉는 자신들이 〈법화경〉을 듣기 전에 대승으로 발심, 전환을 하지 못하여 아뉴다라삼먁삼보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서술하고 있다. 공(空)과 무상(無常), 무작(無作)은 소승법에 설해져 있는 주요 내용을 나타내는 말이다. 공은 무아(無我)의 이치를 나타내는 말로 대승의 공관(空觀)과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 무상(無常)은 고(苦)를 설명하기 위해 전제되는 말로서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라는 말로 연결된다. 무작(無作)은 어떤 작용이 없다는 뜻으로 고(苦)를 성립시키기는 하지만 고를 만드는 작용이 본래는 없다는 뜻이다.

소승경전으로 알려진 〈아함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 공(空)이다. 불교의 핵심 교리가 사성제(四聖諦)이다. 이 사성제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은 이를 성문(聲聞)이라 한다. 혜원(慧遠)이 쓴 〈대승의장(大乘義章)〉에는 성문의 뜻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부처님의 음성에 의한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 둘째, 부처님 음성에 의한 가르침을 들은 그대로만 깨달은 사람. 셋째, 불도를 설한 음성을 모든 사람들이 두루 들을 수 있도록 교화하는 사람이다. 하여 앞의 둘을 소승성문이고 셋째는 보살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다. 보살은 대승에 속하므로 성문을 대 · 소승으로 구분하여 말한 것이다. 원래 성문은 석가모니 재세 시에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하나로 쓰였다. 아라한(阿羅漢)이라는 말과 같이 쓰였다. 물론 부처님 자신도 아라한이라 말한 적이 있다. 5비구를 제도하여 아라한이 되게 한 후 '이제 이 세상에 6아라한이 있게 됐다' 고 한 말이 경전에 나온다. 그리하여 아라한을 공양을 받은 자격이 있다는 뜻에서 응공(應供)이라 번역, 여래십호의 명호에 들어 있다. 〈잡아함경〉에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후에 하신 말씀이 나온다. "나는 생이 이미 다하였고, 청정한 행도 실현하였으며, 할 일도 이미 다 마쳤으니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하였다. 이는 아라한의 경지에 대해 말한 것이다. 번뇌를 모두 끊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라한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이 아라한의 경지가 불법을 완전히 성취한 경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에 아라한이 완전한 경지라면 수기를 줄 필요도 없지 않은가. 4대 제자가 성문의 해탈이 불법의 구경 경지가 아님을 법화법문을 듣고 비로소 깨닫고, 무량한 보배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얻게 되었다고 감탄하면서 보리심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다는 '비유품' 의 한 대목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육체 행위 아닌 정서적 행위로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⑧ 불사음계의 실천

오계 가운데 세 번째인 불사음계(不邪婬戒)는 그릇된 음행의 절제와 관련이 있다. 출가자는 원칙적으로 사원에서 독신의 삶을 살도록 요구되지만, 재가자에게는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재가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 계는 비도덕적인 성행위와 간음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결혼한 성인에게는 배우자 간의 성생활만 허용되며, 혼외의 성생활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결혼하지 않은 성인일지라도 불법적인 성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이는 성적인 욕망이 인간의 가장 강한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누르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적인 충동이 주기적인 동물과 달리 인간의 성적인 욕망은 지속적이다.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성적 집착은 결국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의지 또는 욕망이거나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지 또는 욕망이다. 이런 의지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도덕적인 성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악행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적 발전으로 성적인 욕망을 적게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성적인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발전으로 그것을 절제해야 한다.

어떤 이는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에게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금욕적 삶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욕락(五欲樂), 즉 다섯 가지 욕망이 주는 즐거움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해 다섯 가지 감각[五感]과 관계하는 다섯 가지 대상[五境] 즉, 시각적 대상, 청각적 대상, 후각적 대상, 미각적 대상, 촉각적 대상에 대한 탐닉을 금지한다. 특히 성적인 욕망으로 인한 부정한 성관계는 촉각적 대상에 대한 탐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사음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대상에 대한 탐닉을 직 · 간접적으로 멀리해야 한다. 당연히 음란물을 보거나 듣거나 유포하거나 모방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 가지 대상에 대한 탐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삼라만상의 무상(無常)함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대상에 대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는 것, 즉 '적은 바람과 만족함' 이다. 많은 이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 지금이 최고의 상태가 아니라는 불만족한 느낌은 특정 대상에 대한 비정상적인 탐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스승이 제자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등이다. 이런 불만족한 상황은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할 줄 알아야만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만족함은 '최고의 부유함' 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불사음계를 실천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릇된 음행을 절제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배우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릇된 음행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배우자 간의 만족은 성적인 욕망에 대한 절제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부부간의 성행위를 감각적 차원이 아닌 정신적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상호 교감을 위한 정서적 행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테면 서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만족감을 드러내거나,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대화하거나, 늘 서로를 배려하는 것 등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⑧ 고대인도의 문자

부처님 당시 문자 없었을까?

고대인도 문화사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천 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문자(文字)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원전 2천 년경 인더스 문명기에 사용되었던 인더스 문자가 아직 해독되지 않은 채 역사 속에 묻혀 버렸고, 다시 그 이후 인도에 문자가 등장한 때를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 비문의 문자가 나타난 때로 본다면, 고대인도인들은 최소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문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 싯다르타가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싯다르타는 정말 무문자(無文字)의 사회 속에서 살았던 것일까. 우리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른다.

인도 고전 속에는 고대 인도인들이 문자를 사용했을 법한 약간의 단서가 보이기는 한다. 아마도 싯다르타의 시대와 가장 근접한 사람 중에 기원전 4세기 중반 빠니니(Pāṇini)가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는 구전으로 전승된 자신의 문법서에 '리삐(lipi)'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글자' 또는 '문자' 를 뜻할 수도 있다. 또한 '그란타(grantha)' 라는 단어도 썼는데 이는 '책' 을 가리키는 말이라 풀이하기도 한다. 따라서 싯다르타 당시에 문자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는 이유는 이런 희미한 단서를 통한 것이다. 하지만 리삐나 그란타라는 단어가 실제로 당시에 글자와 책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유사한 시기에 또 다른 증인으로 그리스인이 있었는데, 그는 기원전 4세기경(B.C 325년경)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인도 북서부 지역에 들어왔던 장군 네아르코스(Nearchos)였다. 그의 기록은 후대의 역사가 스트라본(Strabon)에 인용되는데 네아르코스에 따르면, "인도사람들은 천조각에 글자를 썼다"고 전한다. 그렇지만 정반대의 그리스인 증인도 있다. 네아르코스보다 20여 년 뒤늦게 인도 땅에 등장한 메가스테네스(Megasthenes)다. 그가 인도에 살면서 남긴 인도 역사서 〈인디카(Indica)〉는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후세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인용되는데, 그에 따르면, 인도사람들은 '기록문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인들이 남긴 단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네아르코스는 주로 인더스 강 하류의 인도지역을 기록한 사람이었고, 메가스테네스는 갠지스강 유역의 인도를 기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차이는 당시 인도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크게 바꾸어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더스강 유역의 인도북서부 지역은 그리스인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아람어가 통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람어와 아람(Aramaic) 문자는 인도북서부 지역까지 퍼졌던 국제공용어(lingua franca)로서 탁실라 등지에서 아람어 비문을 보게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네아르코스가 "인도사람들이 천조각에 글자를 썼다"고 한 것은 인도 고유의 문자가 아니라 아람 문자를 사용하는 누군가를 관찰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갠지스 강이나 야무나 강을 따라 마우리야 왕조의 본거지 파탈리뿌뜨라를 방문했던 메가스테네스의 기록은 인도 본토의 내부 상황에 더 충실했을 수 있다. 즉, 이방인의 유입이 빈번했던 인도북서부와 달리 싯다르타가 활약하던 인도 동북부 지역은 문자 활동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기원전 5세기 전후에 살았던 싯다르타는 과연 문자 없는 사회 속에 살았던 것일까. 현재로서는 추측과 상상만 가능할 것이다. 비록 그 당시에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어도,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 비문에 나타난 브라흐미(Brāhmī) 문자는 그 형태가 이미 꽤나 발전한 상태의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싯다르타가 살았던 시대에는 아쇼카 비문에 나타난 브라흐미 문자의 초기 형태를 사용했거나, 아마도 브라흐미 문자가 파생되어 나온 어떤 근원 문자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 학자들은 브라흐미가 아람 문자에서 파생했을 것이라는 데 거의 동의한다. 지중해 연안의 셈족 언어를 표현하던 아람 문자가 충분한 변형의 과정을 거쳐 인도 동북부까지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아마도 싯다르타는 그 문자를 목격했을지도 모른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유용한 수행 4가지



1. 역행명상 - 모든 안 좋은 상황을 좋게 봐요. 마음의 힘을 키우고 수행의 기회로 삼아요. 안 좋은 것도 좋게 볼 수 있어요. 좋은 태도를 가지면 저항이 없어지고 감당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현상에 마음을 열면 상당한 이로움이 되어요.

2. 자비의 동기 - 무엇을 하든 자비의 동기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힘들고 타인을 위한 동기를 가지면 힘이 생겨요. 항상 자비의 동기를 확인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3. 허물 밝히기 - 에고의 방식은 자신의 허물을 숨기려고 합니다. 허물은 숨기면 커지고 밝히면 작아져요. 크고 작은 모든 허물을 널리 알리세요. 인정과 정화는 동시에 일어나요.

4. 의미 있는 멈춤 - 잠시 멈추고 몸과 마음을 쉬어요. 아무것도 안하는 편안한 멈춤을 짧게 자주 누려보세요. 회복과 통찰은 멈춤 속에 있어요. 심호흡을 한번 고르고 Relax!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④ 고수차

월진월향의 '마시는 골동품'

〈越陳越香〉

중국 알리바바의 창시자 마윈은 보이차 전도사다. 보이차를 좋아해서 혼자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보이차 보급에 오랜 동안 공을 들였다. 그는 여러 차들 중에서 특히 보이차를 좋아하는 데, 그 이유는 보이차의 성질이 IT업계의 속성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마윈은 중국 IT업계의 기념비적 인물이다. 알리바바를 창업하여 중국인의 소비 패턴을 전자상거래로 완전히 바꿔놓았고 알리페이, 타오바오 등 여러 영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IT업계는 정신적 압박이 큰 분야이다. 마윈 같은 세계적 초강자라도 과학기술의 최첨단에서 조금만 주춤하다보면 바로 신기술에 밀려난다는 생각에 늘 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성이 시간의 첨단을 달려가면 감성은 더 아날로그적인 자연에 일부러라도 머물게 해 주어야 한다. 생명의 균형을 맞춰주어야 한다. 도시 한 복판에서, 사무실 책상에서 바로 접할 수 있는 자연의 정수가 바로 차이다. '차(茶)'라는 글자를 들여다보면 '풀'과 '나무'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 차를 마시는 순간 차를 마시는 사람은 대자연의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차는 대자연의 선물이요, 신선의 이슬이다.

중국 무술영화의 스타 리롄지에(이연걸)도 젊어서 무술영화 촬영 중에 부상을 많이 당해서 오십을 넘긴 이후부터는 건강관리에 열심이다. 그런 리롄지에가 선택한 것도 보이차였다.

마윈과 리롄지에는 보이차 사랑으로 의기투합했다. 알리바바 주식이 미국에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한창 주가를 올리던 2013년에 그 바쁜 마윈은 어렵게 일정을 비워 리롄지에와 함께 윈난성 보이차 산지를 견학했다. 그리고 이듬해 베이징에서 공동으로 보이차 사업에 투자했다.

마윈과 리롄지에는 아마도 스타벅스에 버금가는 보이차 비즈니스 제국을 창업하고 싶었던 것 같다. 리샤오룽(이소룡)의 뒤를 이은 쿵푸 스타 리롄지에의 이미지에 마윈의 창조력을 결합하여 타이지젠(TaijiZen, 태극권+젠)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보이차를 출시했다. 당시는 중국이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을 설립하고 중국 중심주의의 확산에 관심을 기울이던 때였다. 타이지젠의 창업은 중국 공산당의 행보와도 맞았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타이지젠은 성공하지 못했다.

인간의 세계야 어찌 돌아가든 차나무는 묵묵히 한 자리에서 다가오고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반가워하지도 않고 좌절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얕잡아보지도 않는다. '하늘은 무심하다'는 말처럼 차나무는 무심하다. 그저 찻잎을 피워 공평하게 나누어준다.



수백년된 천연원시림 고차수 찻잎으로 만든 보이차를 고수차라고 한다.

윈난성 천연원시림 고차수잎
오래 묵을수록 향기·맛 더해

윈난성의 천연원시림 차산에는 수 백 년을 살아 온 차나무들이 있다. 농약은커녕 사람의 발길도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수 백 년을 살아 온 차나무를 고차수라 하고, 그 고차수 찻잎으로 만든 보이차를 고수차(古樹茶)라고 한다. 평지에서 자란 차나무에 대비되는 말이다.

수 백 살의 차나무가 무심히 내어주는 한 잔의 차, 그 무심한 차 한 잔에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쉬어가자.

고차수로 정성껏 만든 보이차는 한 해 한 해마다 정말 맛있어진다. 일 년이 지나면 달아진 향기만큼 십 년 후에는, 또 이십 년 후에는 어떻게 변해갈까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보이차를 나와 놀아주는 차라고 했던가. 보이차는 함께 나이 들어가는 차이다.

고차수로 만든 보이차는 햇차보다 오래 묵힐수록 값어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마시는 골동품'이라고도 한다. 오래 묵을수록 더욱 향기롭고 맛있어진다고 해서 '월진월향'이라고 한다. 할아버지가 사서 손자가 마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이차는 2~30년이 지났을 때 차의 맛이 최고조에 달한다.

마윈이 보이차 차산을 견학하고 보이차를 만들었듯이 나 역시 같은 궤적을 밟았다. 본래 나는 차 애호가였다. 보이차는 90년대에 한국인 최초로 베이징대학 교수로 재직할 때에 베이징대학 당위서기로부터 소개받았다. 중국 대학은 교수·연구를 총괄하는 총장과 행정을 총괄하는 당위서기가 최고책임자이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다 보이차를 마신다고, 건강에 좋기로 보이차만한 차가 없다고, 불필요한 체내지방을 빼준다고 열심히 설명해주던 당위서기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처음에는 베이징 보이차 도매시장인 마롄다오에서 보이차를 구매했는데, 믿을만한 곳이라고 소개를 받아 구입을 해도 한국에 와서 펼쳐보면 기대했던 차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차라리 윈난성 차산에 직접 가서 내가 먹을 보이차를 내가 만들어 두고두고 익혀먹자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윈난성 천연원시림 차산을 방문하고 나서 마음이 크게 달라졌다. 평균 해발 1500미터 깊은 산의 차나무들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윈난에 가면 수령 800년, 1000년, 3200년 차나무들을 볼 수 있다. 차산마다 가장 오래된 차나무를 차나무의 왕이라 해서 차왕수라고 부른다. 차산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차왕수에 경배를 하러 간다. 천 년이 넘은 차왕수는 거창하고 근엄할 줄 알았다. 그런데 정반대였다. 너무나 소박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이 찻잎을 내어 주어서 늙고 구부러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모습이었다. 할머니 같고 할아버지 같은 모습, 천 년을 살아도 그저 겸손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한참을 차왕수를 바라보면서, 차나무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차와 사람을 잇는 연결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2019년은 특히 가물어서 차나무의 찻잎 소출량이 예년의 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만큼 찻잎에 차기운이 농축되고 달았다. 포랑산 남나산 최소 백년 이상 된 고차수 차나무를 찻잎을 딸 때부터 직접 확인하고, 고차수 봄 첫잎으로 전 과정 수공으로 만든 보이차, 교수에서 차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차왕수에 인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만든 보이차, 좋은 차가 사람을 치유하는 힘을 믿고, 작품을 만들듯 정성으로 만든 보이차가 바로 백년고차 보이차이다.

〈잇다it茶 대표〉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당신의 자존감은 안녕하신가요 ❷ 자존감 형성

▶ 한줄 요약
나를 사랑하라.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기사랑, 세상 향한 사랑 첫걸음



지금까지의 자존감 연구는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집단적 자존감도 충분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우리 사회는 지금 경제적 문제가 개인의 자존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관련된 한국인의 인식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한창 유행하고 있는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부자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조사에 참여한 나머지 9개국의 평균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한국인 중 다수가 부자는 부모의 덕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믿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한국 사람이 부자는 부패와 권모술수로 돈을 모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머지 국가에서는 소수만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부자는 열심히 일한 결과로 부자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 역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이처럼 돈과 관련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이 가난한 부모니 불평등한 사회, 세상을 향해 더 크게 분노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 결과 스스로 책임을 지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쉽게 좌절하고 비관하며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지금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보다 부정부패와 부를 세습하는 현실의 벽에 압도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인 자존감만이 아니라 집단적 자존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모나 대리모의 역할을 해 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돈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구조와 인식 또한 한국인의 자존감 형성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돈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익숙하다는 사실을, 즉 부의 많고 적음에 따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돈과 관련된 우리의 문화와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인의 기본 권리와 인권을 더 많이 침해하고, 나아가 건강한 자존감 형성과 발달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불안의 시대, 남은 것은 자존심 뿐

자존감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구로는 매슬로의 욕구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리적 욕구가 먼저이고, 그것이 충족된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며, 이어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생겨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야 자아존중감에 대한 욕구가 생겨납니다. 이 체계대로라면 웬만해서는 자존감의 영역으로 들어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헬조선' 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말은 지옥과 조선을 합성한 '지옥 같은 대한민국' 이라는 뜻으로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 불안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N포세대'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삼포세대, 거기에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오포세대', 인간관계나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한 '칠포세대' 등의 신조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들 신조어는 무급인턴, 88만원 세대, 열정페이, 민달팽이 세대 등의 용어와 함께 젊은 세대들이 당면하고 있는 정신적, 사회적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생존에 대한 위협과 불안, 사랑과 소속감 결여는 현대인이 겪는 보편화된 심리적 위기 현상입니다. 요즘은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해갈지, 후유증이 얼마나 많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불러오고, 우리 생존을 위협하고 변화시킬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도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안전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사랑과 소속감 역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와 비교, 인식과 강박증
자존감 결여로 자연 변화해
열등감, 패배감으로 이어져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 필요

말하자면 자존감에 대한 의식을 떠올리거나 주장하기에는 생존의 위협이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상처 난 자존감, 손상된 자존감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망각하고 상실한 나머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자존감은 자존심으로 변질되어 열등감과 패배감, 또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수시로 이런저런 사소한 일로 잘난 체하거나 반대로 자존심 상해하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자존심 때문에 울고 화내고 좌절합니다. 일상이 살아남기 위한 투쟁으로 치달으면서 우리 의식의 심층에 내재된 자존감이 자각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자존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갈수록 마음이 고단하게 지쳐갈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자존감과 자존심을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존감과 자존심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구분해 본 것입니다.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각, 느낌에 가깝다면 자존심은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생각, 인식에 가깝다고나 할까요. 그러므로 자존감은 이성적 판단이나 비교, 평가, 계산과 같은 심리가 개입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성질인 반면에 자존심은 판단, 비교, 평가, 계산 등이 작용한 심리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흔히 자존감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자존심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 바뀌면 자존감도 바뀐다

우리 내면에 건강한 자존감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있지 않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 비난 또는 타자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의 기능이 떨어질수록 자존심이 득세하게 되는데, 자존심은 불만족, 완벽주의, 과도하게 상대나 타자에게 맞추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타자의 비난이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방어적인 행동과 말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어려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든 자존감이 손상되어 정신적인 힘겨움을 겪고 있다면 치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야 할 까요? 앞서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느낌,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주관적이고 정서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믿는 태도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견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나 판단, 믿음을 바꾼다면 당연히 자존감도 변화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 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개념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살고 있는 환영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가치가 달라지므로 자신에 대한 판단이나 믿음, 태도를 바꾸면 된다는 얘기지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어차피 생각에 불과하다면, 굳이 불건강한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자신을 경멸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모든 인간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과 고통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생각과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향해 무조건 긍정적인 존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담자는 치료자가 자기의 잠재력을 믿어 주고 조건 없이 긍정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경험을 통해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 칼 로저스가 창시한 인간중심 치료의 핵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 능력이 평균 수준에 속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뭔가 남보다 뛰어날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것은 자존감이라기보다 우월감이나 자신감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남보다 뒤지거나 평균 이하로 평가받게 되면 자존감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 것은 열등감이나 자신감의 결여, 패배, 실패감으로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존감에 대한 개념은 생존하고 경쟁해야 하는 사회와 교육환경 아래서 다분히 잘못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력과 지위, 돈과 외모 등을 좇으면서 신경증적인 욕구를 발달시키더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타자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종국에는 허무와 공허감만을 더해 가게 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저자 : 김정호(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
서광 스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불광출판사 펴냄〉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30 호 현대불교 21
2021년 3월 3일(음 1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다시 맡겨 놓고 믿고 물러서지 말라

큰스님 … 맨 마지막에 그 법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루는 겁니까? 누가 이루냐니까요? 누가 이루는 겁니까? (잠시 사이) 왜 말들을 못 해요? 누가 이루는 겁니까?

그전에 대만에 갔었습니다, 불광사라는 데를. 아침 예불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당에 부처님이 삼 불이 놓여 있으면서도 하여튼 벽 사이로 조그만 부처님들이 수만 개가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벽 사이에 이렇게 틈나는 대로, 옛날 문창에 해 놓듯 나무로다가 그렇게 해 놓고 그 안에다가 다 모셨습니다. 그러니 뭐, 빌 틈도 없죠, 부처님이.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만 불이 다 부처님이라면 진짜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요? 진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부처님들 중에 말입니다. 이래도 그냥 묵묵부답일 겁니까?

신도1(여) 자기 마음속 아닙니까?

큰스님 마음속 안에 있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부처는 어디 있을까요?

신도1(여) 그 마음이란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아닌 것을 말합니다.

큰스님 내가 아니라는 그 말 하는 사람의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말은 어디서 왔어요?

신도1(여) 공중에서.

큰스님 허허허. 공중에서 온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신도1(여) 분명히 말하면 제 육체 안 어디서 나오겠죠, 성대라든가 배 속에서요. 그러나 이거는 공중에서 나오는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 당신 배 속에서 나오고, 당신 몸이 무너진다면 어디로 또 나올까요?

신도1(여) 저는 그 해답을 듣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큰스님 예전에 사명 대사와 서산 대사가 담설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 대사는 새를 한 마리 쥐고서 "제가 이걸 놔 주겠습니까, 안 놔 주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 대사는 아무 소리 없이 나가면서 문지방에 걸쳐 서서 "내가 나가겠는가, 들어가겠는가?" 하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말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홍서원을 읊었는데 어떻게 해서 끊는다고 말을 했을까요? 끊는 게 옳습니까, 끊지 않는 게 옳습니까? 공에 치우쳐도 아니 되고 말입니다. 만법귀일이라고 했습니다. 공에 치우쳐도 아니 되고 공에 안 치우쳐도 아니 되고, 무로 빠져도 아니 되고 현실주의자로 빠져도 아니 됩니다. 내가 없는데 공중에서 어디서 옵니까?

그 중심이란…, 우리가 공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오온에 같이 융합이 돼서 원형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살림살이가, 만법에 의한 이 세상살이가 당신의 그 근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생명이 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한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자기 주인공은 여러분에게 다 각기 있으나 같이 얼크러져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기에 조금 가능성이 있어야 서로 말이 되고 진담이 되고 나중에는 참, 선답이 되는데 이게 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들 하세요. 생활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들 하세요.

옛날에도 한창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어느 스님께 묻기를 "인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인과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오백 세나 여우의 몸을 받아 가지고 곡경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인과가 없습니까, 또는 있습니까? (잠시 사이) 아직도 멀었군!

그럼 여러분의 그릇대로 질문들 하세요. 우리가 사홍서원을 아침마다 하고 저녁에도 하고 사시 마지 때도 하고 항상 마음속으로도 그럭하고 평상시에도 집에서 항상 그럽니다. "끊으렵니다" 하고 말입니다. 망상 그런 거를, 모든 거를 끊고 중생을 거두렵니다, 건지렵니다, 이루오리다 하고선 외칩니다. 건지는 것도 아니고 끊는 것도 아니고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놓아야 됩니다.

그 모두를 맡겨 놓지 않는다면, 스스로서 내가 공하고 세상이 공했는데 공한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어디에서 맛보렵니까? 나라는 존재를 맛을 못 보면 세상의 모든 갖가지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맛을 못 보고는. 하나에서 만법을 통하고 만법을 통하는 데서 한생각으로 들고, 들면서 또 통하고 이러는데, 한생각 나고 우리가 말을 하고 움죽거리고 자고 깨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바로 자기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건데 주인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웃고 즐기고 이렇게 다양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진법을 이루는 데에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차이죠. 어떤 사람은 주인공과 자기를 둘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익지 않았을 때는 둘로 삼고 매달리고, 매달리는 거보다도 관하고 의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모든 걸 놓고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가서 가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즉 말하자면 운전을 하고 가는 데에 내가 발동을 걸어야 차가 가는데 '아,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해 주니깐, 뭐….' 이렇게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장속에 금을 묻어 놓고 가만히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바깥으로 빛이 나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모양, 모습으로 발전이 돼서 넓힐 수가 없어. 즉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면 지혜가 넓어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건 공에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익도 없고 해로움도 밑질 것도 없지. 그러니까 편안하기는 하나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항상 금을 캐내서 생산을 하고 이러듯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갈 때도 기름이 있고 차가 있고 운전수가 있으니까 '뭐, 가자는 대로 그냥 내가 가기만 하면 되지.' 그러고선 가만히 운전수는 주인이 가랄 때만 바라고 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사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차를 가진 사람이나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죠.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양면으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남의 기사 노릇을 하느냐,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 끄느냐 하는 겁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내가 맘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발동을 걸어서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깐 차도 자기가 곱게 끌 뿐 아니라 남의 차가 아니니까 곱게 끌고 곱게 모든 거를 깨끗이 닦고 아주 당연하게 합니다. 그러나 남의 차를 끄는 사람은 당연하게 닦아야 하지만 그건 의식적으로 이것이 남의 차라는 것을 알면서 조심조심 다루고 또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주인이 가잘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처지가 되죠. 그렇게 해서 남한테 만날 질질 끌려다니렵니까, 자기가 자가용을 타고 자유자재하시렵니까.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작으면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도 가난하게 해 나가. 폭이 좁고 지혜가 넓지 못해서 허공에 바늘구멍도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만큼 그렇게 살림살이가 가난하죠. 물론 돈이 많고 적고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쓸 데다가 못 쓰고 쓰지 못할 데다 쓰는 그런 좁은 사람이 행하는 살림살이라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한 푼 쓰는 것만 못하죠. 그래서 양 무제가 그렇게 많은 시주를 하고 또 그 나라에서 그래도 일컫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달마 대사가 공덕이 있다고 칭찬을 해 줄 줄 알고 양 무제는 "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모든 것을 참,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남한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다가오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양면을 두고서 하기 때문에 벌써 욕심이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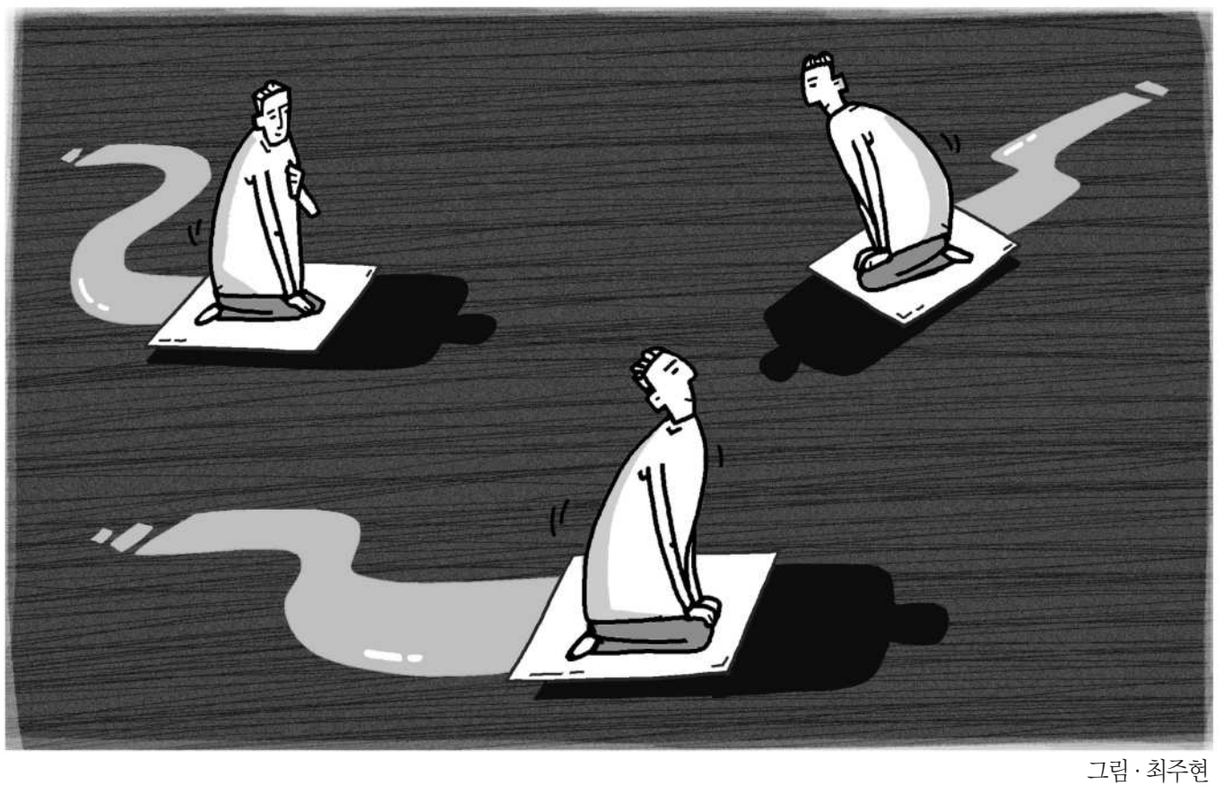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 공해서 내가 없다면 병도 모든 게 다 붙을 게 없어요

☞ 21면에서 계속

앞서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가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물건을 얼마짜리 샀으면 그뿐인데 그것을 되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라고, 장사치마냥. 또 장사치한테 물건을 사러 가는 거마냥.

그러나 사러 가지 않고 물건을 달라지도 않고 무주상 보시를 한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와서 시주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이러는 것도, 자기가 잘되고 못되고, 받아 가고 안 받아 가고 그러기 이전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고 마음이 내켜서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일체 신이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또 삼라만상 법계에서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자기 마음이 아니까, 그것을 꼭 받아 가려고 안 해야, 무주상 보시로 들어가야 무주상으로 나한테 오지, 가게에 뭐 사러 가는 거 모양으로 내가 가지고 가면 꼭 받아 와야만 직성이 풀리고, 이런 기복으로만 나간다면 우리는 참된 진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 정성을 들였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고 유감으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기 이 사대 오온이 다 공한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보시걸랑은, 우리도 지금 몸뚱이를 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다 다른 이름이지만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움죽거리면 한 몸이 다 움죽거리게 되지요. 그렇듯이 이 우주도 우리가 한생각 하고 돌아가는 대로 이 전체가 다 움죽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로 배워서 말을 잘한다고 해도 몸이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입이 떨어지면 말도 떨어질 것을 어째서 말로 그냥 한데 떨어뜨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만법귀일이라는 그 뜻이, 내 마음이, 내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렇게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만법을 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법을 응용하는 데도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움죽거리는 게 다 내 한마음에서 항상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없다면 만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만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여러분이 다 공해서 내가 없다면 병도 모든 게 다 붙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익도 밑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도리를 알면 여러분이 '아하, 이 법당에서 나가면 참 햇볕이 짱짱하고 이 법당에 들어오면 여기가 좀 볕이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 손바닥을 이렇게 젖히면 '아, 이건 손바닥이구나!' 이렇게 젖히면 '이건 손등이로구나!' 이걸 역력히 알게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대로 내가 화두요, 내가 근본이요, 내가 바로 만법을 응용하는 내 주인공이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자기가 길잡이가 되고 자기가 길잡이에 의해서 움죽거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한 이 도리가 나와 더불어 같이 앉았을 때는 같이 또 둘이 아닙니다. 말을 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순간 듣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나와 같이 앉아서 한바탕 같이 방귀 뀐 셈입니다, 방귀. 누가 했는지 누가 들었는지 방귀 뀐 거와 같으면서도 방귀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그거 하치않게 이렇게 나오는 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치않은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한 사람도 있었거든, 조주 스님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왜 없다고 했고 있다고 했느냐. 없다고 한 것도 아니 되고 있다고 한 것도 아니 된다면…. 그러면 없다고 하는 거는 없는 대로 공에 치우쳤고 또는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실에 치우쳤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2(여) 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큰스님 뭘요?

신도2(여) 있고 없고에 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고요.

큰스님 그거는 말담이 거기에 정확하게 들지를 못했어요. 매이지 않는 것은 공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 생활에 걸리지 않고 공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지 않는다는 것, 생활에서 걸리지 않는다는 거뿐입니다. 거기에 또 그 환경에 의해서 약간의 다른 말담이, 즉 말 한 사이 없이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다 이 도리를 모르니까. 바로 그것은 세울 게 없는 겁니다. 끄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인과가 없다' 하는 데서 그건 없다고 해서도 아니 되고 있다고 해서도 아니 되기 때문에 인과에 끄달리지 않는다고 해야만이 대답이 되겠는데, 없다고 해서 오백 세를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러니 그 말끝에는 그 말이 옳지만 그 말끝에는 그 말이 옳지 않죠. 옳지 않은 것도 없는 그 도리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다 말로 선문답을 하는 것도 있고 말없이 어떤 사람이 "야, 지금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석불을 가리키면서 저 부처님이 부처님이라고, 석존께서는 저렇게 계시다고, 이날까지 살아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색만 보고 취하는 일이지 진가를 모르는 일들이죠. 항상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죠? 법당에 들면 법당에 드는 대로 그 모습과 내 모습이 둘이 아니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니 항상 여여하게, 여여하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말고, 내가 숨 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그대로 여여함이라고요. 한 치도 끊어지지 않고,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그냥 이렇게 여여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점이요.

만약에 사량으로써 끊는다, 망상이 들어오니까 끊는다 한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끊는 게 아니라 공해서 내가 억겁을 거쳐 오면서 살던 습에 의해서 내 머리에 자꾸 떠오르는 건데, 그러면 자기 살던 인연을 다 끊을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용광로에 넣듯이 다 맡겨 놓는다면 바로 그것이 녹아서 다시 생산이 돼서 계발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오늘 질문하시고요. 잠깐 끝내렵니다. (잠시 사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치않은 생활이라고 하지만 하치않은 게 아닙니다.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주의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달나라에 갔다 오고 위성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첨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첨단의 능력을, 만법의 능력을 자기가 계발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할 뿐입니다.

선문답이니 말담이니 설법이니 하는 것도 이 모두가 알고 보면 도깨비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전부 살아나가는 것이 도깨비장난이기 때문에 도깨비 같은 말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발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쩝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나도 모르고 여러분이 알면 나도 아는 거지 어떡합니까.

지금 저 해 좀 보십시오. 우리가 지붕을 해놨으니까 여기는 볕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면 저렇게 다 고르게 비춰지고 있네요. 하여튼 가만히 보면 일 년 이태 삼 년 이만치 극성스럽다는 소리 듣고 "참 안하무인이야, 날마다 그냥…."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라야 그때부터는 됩디다. 어딘가 모르게 좀 눈을 뜨게 되고, 파란 눈을 뜨게 됩디다.

질문자(여) 인간 관계에 있어서요, 모나지 않고 그냥 둥글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큰스님 그래 아까 둥글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사대가 공했고 오온이 다 공했어요. 사대가 따로 있고 오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대와 오온이 다 더불어 같이 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듯이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체가 다 한데 공했다는 얘깁니다. 부처님 말씀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라." 이렇게 한 것은 보이는 색신이 다, 고정된 관념으로서 생각하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듣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니 아주 역력하게 밝고 검고 하면서도 그렇게 전부 공했느니라 이거야. 그래도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실에 치우쳤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2(여) 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큰스님 뭘요?

신도2(여) 있고 없고에 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고요.

큰스님 그거는 말담이 거기에 정확하게 들지를 못했어요. 매이지 않는 것은 공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 생활에 걸리지 않고 공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지 않는다는 것, 생활에서 걸리지 않는다는 거뿐입니다. 거기에 또 그 환경에 의해서 약간의 다른 말담이, 즉 말 한 사이 없이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다 이 도리를 모르니까. 바로 그것은 세울 게 없는 겁니다. 끄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인과가 없다' 하는 데서 그건 없다고 해서도 아니 되고 있다고 해서도 아니 되기 때문에 인과에 끄달리지 않는다고 해야만이 대답이 되겠는데, 없다고 해서 오백 세를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러니 그 말끝에는 그 말이 옳지만 그 말끝에는 그 말이 옳지 않죠. 옳지 않은 것도 없는 그 도리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다 말로 선문답을 하는 것도 있고 말없이 어떤 사람이 "야, 지금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석불을 가리키면서 저 부처님이 부처님이라고, 석존께서는 저렇게 계시다고, 이날까지 살아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색만 보고 취하는 일이지 진가를 모르는 일들이죠. 항상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죠? 법당에 들면 법당에 드는 대로 그 모습과 내 모습이 둘이 아니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니 항상 여여하게, 여여하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말고, 내가 숨 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그대로 여여함이라고요. 한 치도 끊어지지 않고,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그냥 이렇게 여여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점이요.

만약에 사량으로써 끊는다, 망상이 들어오니까 끊는다 한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끊는 게 아니라 공해서 내가 억겁을 거쳐 오면서 살던 습에 의해서 내 머리에 자꾸 떠오르는 건데, 그러면 자기 살던 인연을 다 끊을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용광로에 넣듯이 다 맡겨 놓는다면 바로 그것이 녹아서 다시 생산이 돼서 계발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오늘 질문하시고요. 잠깐 끝내렵니다. (잠시 사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치않은 생활이라고 하지만 하치않은 게 아닙니다.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주의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달나라에 갔다 오고 위성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첨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첨단의 능력을, 만법의 능력을 자기가 계발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할 뿐입니다.

선문답이니 말담이니 설법이니 하는 것도 이 모두가 알고 보면 도깨비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전부 살아나가는 것이 도깨비장난이기 때문에 도깨비 같은 말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발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쩝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나도 모르고 여러분이 알면 나도 아는 거지 어떡합니까.

지금 저 해 좀 보십시오. 우리가 지붕을 해놨으니까 여기는 볕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면 저렇게 다 고르게 비춰지고 있네요. 하여튼 가만히 보면 일 년 이태 삼 년 이만치 극성스럽다는 소리 듣고 "참 안하무인이야, 날마다 그냥…."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라야 그때부터는 됩디다. 어딘가 모르게 좀 눈을 뜨게 되고, 파란 눈을 뜨게 됩디다.

질문자(여) 인간 관계에 있어서요, 모나지 않고 그냥 둥글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큰스님 그래 아까 둥글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사대가 공했고 오온이 다 공했어요. 사대가 따로 있고 오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대와 오온이 다 더불어 같이 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듯이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체가 다 한데 공했다는 얘깁니다. 부처님 말씀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라." 이렇게 한 것은 보이는 색신이 다, 고정된 관념으로서 생각하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듣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니 아주 역력하게 밝고 검고 하면서도 그렇게 전부 공했느니라 이거야. 공했으면서도 역력하니라 이거야. 자는 건 자고 깨는 건 깨는 거다. 높은 건 높고 얕은 건 얕은 거다. 그건 왜냐?

여러분이 안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테레비를 볼 때가 있고 안방마님이 될 때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오셔서 빨래도 하고 쓰레질도 하고 이럴 때는 남의 집 식모거든. 그러면 그 양면의 일을, 거칠고 어지러운 일을 할 때도 있고 내가 잘 빼입고 안방마님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런 양면의 일을 전체 한 분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하는데도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없거든.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게 없거든. 여러 가지 다 하는 것을 두고 만법귀일이라고 그랬어요. 만법을 하면서도 그 한마음 속에서 나가. 그래서 그 한마음 속에서 하는 일들이 한마음으로 들어. 그러니 한마음으로 든다면 그 한마음조차도 내세울 게 없는 것이 부처니라. 왜? "무(無)" 했던 거는 없어서 무가 아니라 너무 역력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없고 돌아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무라고 했고 공이라고 했지, 없어서 무라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금방 문지방 넘어서고 금방 넘어오고…. 여러분이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만날 때는 금방 여러분이 아내의 생각을 하면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여보, 난 당신 사랑해."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그 자리에서 비켜났는데 애들이 들어와서 "엄마!" 했습니다. 금방 마음이 달라져서 "애, 그래." 엄마로서 자식에게 말을 합니다. 생각도 그럭하고 행동도….

그럼 이거는 없어서 "무" 했던가요? 너무 그렇게 찰나찰나 역력하게 있기 때문에 "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입니다. 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이자 공이다. 공이면서도 색이고 그렇게 공했으면서도 바로 참너는, 너를 세울 게 없는 너가 돼야 되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이해만 해서도 아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모든 것은 공에서 나오는 거 공에다 놔라 이겁니다. 믿고. 그렇게 역력한 내 주인공이, 주인공이라고 세울 것도 없는 그 주인공은 그렇게 역력하게, 남편 만날 때는 만나고 자식 만날 때는 만나고 그렇게 일 단도리를 잘해 나가는 내가 그대로인데, 항상 나를 떠나서 딴 데서 찾고 맴돌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믿고 거기다 의지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에게 믿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나갈 길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됐지 무슨 기대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지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주면 저절로 둘이 아니기에 마음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행동도 전달을 했기 때문에, 또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행동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지요. 그러면 스스로서 마음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산울림 울리듯 전달이 또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서 그렇게 돼야지 내가 타의에다 믿고 의지를 하고, 또 타의에서 잘못했다 잘했다 하고 아웅다웅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썽이 많으니까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연결돼서 얽히고설킨다면 아마도 우리가 윤회에서 거듭거듭 걸려서 세세생생에 끄달리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놓고 돌아가는 방법, 자기가 공했으니까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가 다시 맡겨 놓고 믿고 물러서지 말라 이겁니다. (이후 생략)

그대로 내가 화두요, 내가 근본이요, 내가 바로 만법을 응용하는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자기가 길잡이가 되고
자기가 길잡이에 의해서 움죽거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 법문은 1986년 3월 1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불 논단

기후위기 극복, 종단이 나서야

민정희
국제기후종교
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



지구촌 전역 기후재난에 몸살
기후시스템 붕괴 막기 위해선
기온 상승량 1.5℃ 제한 권고

에너지 저장에 광물 30억t 필요
재생에너지전환 근본 해결아냐
에너지 수요 줄이는 노력 해야

정부 정책 속 소비 감소 유도
종단 차원서 적극 행보 걷자

기후재난이 지구촌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덥고 건조한 기후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등 중동 지역에 폭설이 내렸고 중동과 미국에는 이상 한파가 닥쳤다. 모두 지구 기온 상승으로 야기되고 있는 현상들이다.

과학자들은 지구 기후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해왔다. 유엔 산하의 과학자그룹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수준은 2010년 기준 온실가스량의 45% 이상 줄이는 것이다.

IPCC의 권고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능한 빨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세계의 에너지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전망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에는 엄청난 양의 광물자원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하기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계은행은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흑연, 리튬, 코발트와 같은 광물추출량이 2050년까지 50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발전과 에너지 저장에 광물과 금속이 30억 톤 이상 필요하다.

2019년 현재 전 세계 자동차 대수는 14억대로, 2050년이면 약 20억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자동차 모두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경우, 자동차의 전기모터에 사용되는 희토류 계통의 금속 네오디뮴(neodymium)과 디스프로슘(dysprosium)의 연간 추출량이 70% 이상 늘어야 한다. 또한 구리는 2배, 코발트는 4배 이상 추출량을 늘려야만 전기자동차로 모두 바꿀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100% 줄일 수 없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물자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야 생태계에 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관심을 많이 얻지 못했으나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에는 '저에너지수요(Low Energy Demand, 이하 LED)' 시나리오가 소개되어 있다. IPCC보고서는 '탄소포집과 저장(CCSU)'처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기술이나 안전문제가 있는 핵발전보다는 LED시나리오가 파리기후협정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 LED시나리오는 전 세계 물자생산과 소비를 줄임으로써 에너지수요 감소를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사용기간을 늘리고, 고장 시 수리의 권리를 보장하며, 새로운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려는 기업들의 '계획된 진부화'를 금지하며, 공공장소의 상업광고 게시 금지 정책을 만들고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이 포함된다.

이 시나리오는 개인적 차원의 행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전원의 플러그를 뽑는 개인 행동이 아주 의미 없는 것은 아니나 최근 기후과학자들은 개인의 실천만을 강조할 경우, 정부의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불교 종단들이 주축이 되어,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일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더불어 생산과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제도화된 욕망을 줄이는 것으로서 불교적 가치와도 잘 들어맞는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세계관은,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을 추동시킴으로써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기계론적 세계관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 종단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신도들의 인식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행동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社 說

코로나, 랜선기부 정착 기회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불교계 기부처가 크고 작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흔히 기부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어떻던 간에 기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마음이 있더라도 마음은 변한다. 주변에 직접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고 싶지만, 다시 돌아서면 그 돕고 싶은 마음은 잊힌다. 코로나로 인하여 기부 후원이 급감한 것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작용한 듯 싶다. 대면 접촉이 차단되자 기부를 하던 이들도 기부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지금, 우리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사회에서는 현재 QR기부, 모바일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클라우드펀딩이나 해피빈 등 온라인 공동모금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불교계에도 이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SNS를 통해 활동을 알리고,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에게는 디지털 에이징이라 일컬어지는 교육과 함께, 문자, 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기부를 장려해야한다.

코로나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소 멀어졌다 하더라도, 어려운 이웃들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아니 더 많아진다. 이러한 이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불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명확하다. 랜선 기부로 일컬어지는 온라인 기부 활성화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에 친숙한 MZ세대의 전법 포교, 봉사 기부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전 연령대의 랜선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이제 새롭게 머리를 맞대자.

'미얀마 평화', 한국불교계 관심 필요

'야간 순찰 중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 군 저격수가 쏜 실탄에 맞아 사망, 동네 야간순찰 중 사망, 가슴에 총상을 입어 사망, 경찰 구타로 사망.'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외치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해 폭력적인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부의 폭력적 진압에 다치고 체포당하는 미얀마인들이 있다.

2월 25일 군부독재에 맞서다 희생당한 이들을 위로하는 추모기도회에서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망 원인을 하나하나 읽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스러져간 광주시민들을 생각하면 이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다.

미얀마의 현재는 과거의 우리다. 그들이 처한 고통은 과거 우리의 고통이었다. 지금 우리가 영위하는 자유와 평화는 과거 독재에 맞선 수많은 희생의 결과물이다. 미얀마의 현재에 한국사회, 그리고 자비와 평화를 사랑하는 불자들의 관심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과 살생은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바른 인식이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를 억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목적에서도 용인되지 못한다.

미얀마 군부가 더 이상의 악업을 멈추고 미얀마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돌려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불교계 역시 부처님 가르침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미얀마인들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새해 선물과 부처님

설날 합동차례를 지낸 후 떡과 과일 등을 포장해서 병동 간호사들에게 전달하였다. 작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병실은 텅텅 비어서 어느 병동은 환자보다 간호사들이 더 많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작년 이맘때 만났던 환자가 생각났다. 어느 병실에서 한 환자가 나의 모습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이웃 종교의 신자인가 싶어 고개 인사를 하자, 환자는 "스님"하고 나를 불러세웠다. "아, 혹시 불자님이세요"하고 물으니 고개를 끄떡였다. 내가 다가가자 반가움인지 모를 눈물을 떨구는 환자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스님 제가 부처님을 정말 까마득하게 잊었어요"라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만 몇 번을 반복했다.

환자는 30년 이상을 신심있는 불자로 살았다고 한다. 사찰에서 거의 살다시피 할 정도로 기도와 봉사로 자신의 삶을 꾸리는 신심을 자신하는 보살이었다. 가족과 사찰의 스님, 신도들도 인정하는 신심이었고,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 이만하면 부처님 앞에 떳떳할



그림 · 최주현

수 있겠다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석 달 전 말기암 판정을 받고 여기저기 병원을 떠돌며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찾고, 수술을 앞두게 되는 등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는 석달동안 부처님을 잊고 오로지 '병'에 매달렸다고 말하며 망연자실해 하였다.

"제가 어떻게 부처님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며 나를 바라보는 보살에게 나는 어깨를 토닥이며 "보살님이 너무 놀래고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라고 위로하였다.

"부처님께서 스님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30년을 했던 염불이 공염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왜 절을 다니다 말다하나,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었네요."

자꾸 자신의 신심에 대해 자책하는 보살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참 난감하기 그지 없었다. "보살님, 공염불이 아니었으니 저를 보고 얼른 부처님을 기억하셨죠. 이제 새해 첫날 부처님을 기억하게 되셨으니 이제 해야 할 염불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살은 그제서야 얼굴에 자신감이 돌며 그동안 자신이 해온 기도에 대해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금강경〉을 하루에 3독하고 〈천수경〉을 읽었고, 〈법화경〉 사경을 세 번해서 탑 속에 넣었다고.

신이 나서 설명하는 환자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하였다. 새해 첫날 부처님께 올렸던 떡과 과일이 든 봉송을 받고 '새해선물'이라며 기뻐하던 모습이 병동을 도는 내내 선하게 떠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